

380  
347.4

1.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自体研究報告書임.
2.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에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周邊環境與件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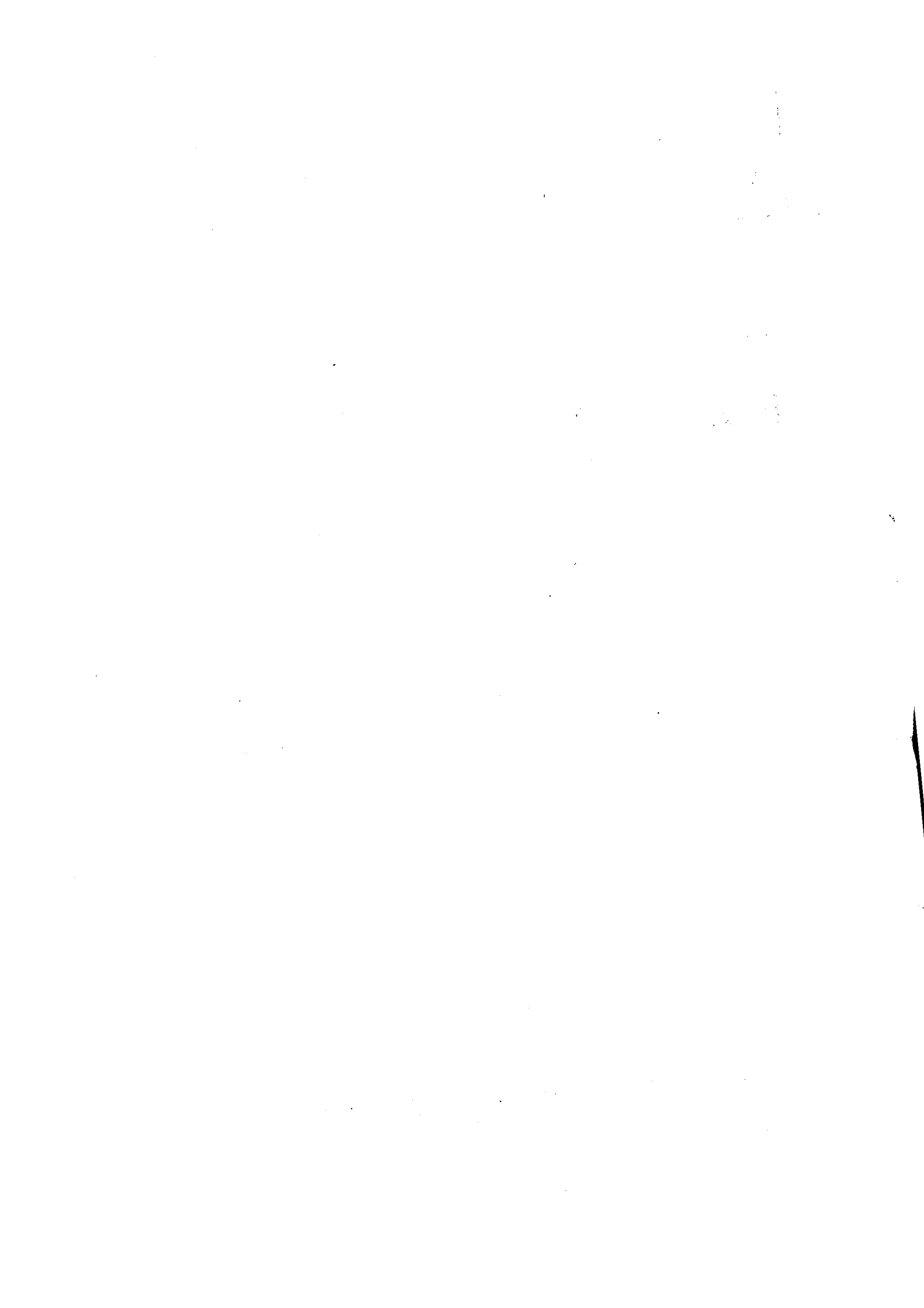
# 中·蘇의 少數民族 政策에 관한 比較研究



研究責任者 宋 榮 大 (第1 研究官)  
 共同研究者 金 德 信 (補 佐 官)  
 呂 成 九 (補 佐 官)

380  
347.4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 目 次

要 旨 .....	3
1. 中·蘇의 少数民族理論 .....	7
가. 마르크스·엥겔스의 民族理論 .....	7
나. 蘇聯의 民族理論 .....	8
다. 中共의 民族理論 .....	9
2. 蘇聯의 少数民族政策 .....	11
가. 少数民族政策의 變遷過程 .....	11
(1) 帝政러시아의 少数民族政策 .....	11
(2) 革命期の 少数民族政策 .....	13
(3) 브레즈네프体制下の 少数民族政策 .....	18
나. 少数民族의 現況 .....	21
(1) 少数民族의 現況 .....	21
(2) 少数民族의 彈壓事例 .....	25
다. 少数民族의 問題點 .....	28
(1) 問題點 分析의 視角 .....	28
(2) 對內的 問題點 .....	29
(3) 對外的 問題點 .....	33
라. 在蘇僑胞의 實態 .....	36
(1) 移住動機 .....	36
(2) 分布現況 .....	38

(3) 生活實態 및 法的地位 .....	40
(4) 在蘇僑胞의 韓國觀 .....	46
3. 中共의 少數民族政策 .....	47
가. 少數民族政策의 變遷過程 .....	48
(1) 第 1 段階 : 中共政權樹立 以前 .....	48
(2) 第 2 段階 : 中共政權樹立 以後 .....	51
나. 少數民族政策의 內容 .....	51
(1) 民族平等政策 .....	51
(2) 民族團結 強化政策 .....	53
(3) 民族區域自治政策 .....	56
(4) 少數民族 幹部政策 .....	58
(5) 言語文字 및 風俗慣習에 對한 尊重政策 .....	60
(6) 少數民族의 經濟文化 發展協助政策 .....	65
다. 少數民族의 現況 .....	69
(1) 少數民族形成의 歷史와 現況 .....	69
라. 少數民族의 問題點과 政策의 向方 .....	82
(1) 少數民族의 問題點 .....	82
(2) 少數民族政策의 向方 .....	84
마. 在中僑胞의 實態 .....	86
(1) 僑胞의 人口 및 分布 .....	86
(2) 僑胞定着의 歷史와 背景 .....	89
(3) 吉林省의 延邊朝鮮自治州 .....	91
(4) 在中僑胞의 祖國觀과 問題點 .....	97
4. 中·蘇의 少數民族政策 比較 .....	99
5. 結 論 .....	108

## 要 旨

1. 본 報告書는 中·蘇의 少数民族政策을 그 紀元에서 부터 現在에 이르기까지 歴史的 觀点에서 把握하고 現在の 少数民族実像을 中·蘇 兩國間의 橫的인 侧面에서 分析하며 이러한 中·蘇의 少数民族政策 構造속에서 韓国人僑胞들의 位置와 役割을 檢討하는데 主眼点을 두었음.

2. 中·蘇의 少数民族政策은 相互 共通点과 差異点을 지니고 있으며 在中·蘇 韓民族은 비록 固有의 言語와 習俗을 保持하고 있어도 漸次 現地同化現象이 나타나고 있는바 그 主要内容은 다음과 같음.

가. 少数民族政策에 관해 蘇聯은 理論面에서 마르크스·엔겔스의 民族自決概念을 레닌과 스탈린이 러시아革命遂行의 原動力으로 導入·使用하였으며 中共은 맑스·레닌의 理論 및 經驗을 中國의 特殊性에 맞게 適用하였는데 兩國의 理論導入의 動機와 背景이 共產化革命의 戰略的 構想이라는 점에서 類似함.

또한 兩國의 少数民族政策 目標도 蘇聯은 러시아民族을 中心으로, 中共은 漢族中心으로 政治·經濟·社会·文化·言語·人種面에서 同和政策을 追求한다는 점에서 共同現象을 보이고 있음.

나. 少数民族에 대한 中·蘇兩國의 現指導層의 認識은 브레즈네프 體制下에서는 비록 強硬策이 表面化되지는 않았지만 항상 과

격한 思想이 그 底辺에 潜在化되어 있는데 반해 華国鋒体制 下에서는 財力, 物力, 人力面에서 少数民族들을 積極 協助하는 온건한 方向에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다. 中·蘇의 少数民族政策의 制度面과 實際面間의 差異點은 蘇聯의 경우 制度的으로는 15개의 聯邦共和國을 바탕으로 各民族의 分離權 및 民族自決權 認定을 憲法으로 規定하고 있으나 實際로는 政治·經濟·社會·文化 全般에 걸쳐 러시아인 中心의 差別政策을 實施하고 있음. 이에 反해 中共은 制度面에서 地域自治制를 바탕으로 하면서 實際面에서도 平等, 宥和, 優待政策을 實施하고 있음.

라. 中·蘇의 少数民族政策과 關聯한 對外問題는 蘇聯의 경우 對東歐國關係, 對美關係, 對西獨關係, 對第3諸國關係등의 問題로 인해 中共에 비해 國際性이 높은 것이 特徵임. 그렇다고 해서 對內民族政策으로 인한 對外的 紛爭擴大 可能性이 높은 것은 아님. 少数民族問題를 주요한 中·蘇 兩國間의 紛爭樣相은 同和政策, 經濟剝奪, 少数民族의 不安등을 主題로 한 雙方間의 放送을 통한 舌戰 및 삐라나 伝單撒布 形態로 展開되고 있음.

마. 在·中·蘇 僑胞의 契態는 모두가 民族固有의 言語와 風俗을 保全하고는 있지만 時日이 經過함에 따라 漸次 喪失해가고 있는 實情이며 이들의 母國觀은 大体로 南北韓 等 距離視角을 保有하고 있는 것으로 判斷됨.

바. 中·蘇의 少数民族政策에 관한 上記의 比較分析에 立脚할때에 다음과 같은 方向豫測이 可能함.

즉 蘇聯은 少数民族政策의 制度面과 實際面間의 表裏不動性에 基因하는 不安定한 同和政策이 惹起시키는 現在의 諸般民族問題에 效果的으로 對處하자면 政治的·經濟的 側面에서 보다 새롭고 세련된 테크닉을 開發해야 함에 反해, 中共은 少数民族의 制度와 實際와의 乖離가 比較的 적기 때문에 安定된 基盤위에서 同和政策을 推進하고 있으며 現在의 少数民族政策 基調를 繼續 追求할 것으로 展望됨.

The first part of the document discusses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ccurate records of all transactions. It emphasizes that every entry should be supported by a valid receipt or invoice. This not only helps in tracking expenses but also ensures compliance with tax regulations. The second part of the document provides a detailed breakdown of the company's financial performance over the last quarter. It includes a comparison of actual results against budgeted figures, highlighting areas of both strength and weakness. The final section outlines the company's strategic goals for the upcoming year, focusing on increasing operational efficiency and expanding market reach. It also mentions the implementation of new software systems to streamline processes and reduce costs.



## 1. 中·蘇의 少数民族理論

가. 마르크스·엥겔스의 民族理論 : 프로레타리아의 世界革命이란 觀點에서 展開

- 民族의 形成을 自本主義發展의 必然的인 結果로 看做하여 社会主義革命의 達成에 의해 民族은 消滅되기 始作하며 民族 그 自体는 社会主義的 民族으로써 全民族을 代表한다고 規定

- 民族主義의 除去가 民族主義 問題의 最後의 解決方案

\* "한 個人이 다른 個人을 搾取하는 일이 없어짐과 同時에 한 民族이 다른 民族을 搾取하는 일이 없어지며 民族内部에서의 階級對立이 없어지면 民族相互間의 敵對關係가 없어진다"

\* "프로레타리아에게는 祖國이 없다"

(출처 : Karl Marx and Friedrich Engels,

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

Berlin.(Dietz Verlag) 1958)

- 따라서 全世界가 社会主義化하면 個個의 民族은 하나의 民族으로서 融和될 것으로 想定

- 民族의 永続性, 民族精神, 民族的運命共同体 등의 概念 否認

- 그러나 例外的으로 프로레타리아의 階級發展을 促進시킬 경우에만 分裂主義의 正当性을 認定

#### 나. 蘇聯의 民族理論

○ 레닌의 民族觀 : 프로레타리아革命 및 러시아革命이라는 2個의 需要에서 提起

- 初期에는 마르크스의 民族理論 답습

\* 부르주아民族主義와 프로레타리아國際主義는 和解될 수 없을 程度의 적대적 슬로건

( 출처 : Lenin, Collected Works, Vol 20

Moscow, 1964 )

- 러시아革命의 戰略的 構想으로써 少数民族에 대한 重要性 提起

\* 러시아, 180 個의 군소민족국가로 構成 :

少数民族의 원시적 분리작용을 革命의 潛在的 力量으로 評價하여 分리를 包含한 民族自決의 슬로건 고양 :

\* 1903 " 우리당에 있어서의 民族問題 "

\* 1912-13 " 民族問題에 대한 党的覺書 "

○ 10月革命과 스탈린의 民族理論

- 少数民族의 分리를 包含한 民族自決權 認定

\* 長期間 러시아民族으로부터의 壓迫으로 인한 少数民族의 불만해소 시도

- 그러나 少数民族 出身의 親러시아人士에 대해 教育을 實施하여 각 自治國家에 배치함으로써 親러시아적 方向으로 誘導하는 同和政策 追求

○ 蘇聯 新憲法, " 諸民族에 대한 분리탈퇴의 自由를 認定 "

- 그러나 프로레타리아獨裁와 少数民族의 분리권이 결합 양상을 보일때는 프로레타리아獨裁를 우선

#### 다. 中共의 民族理論

○ 맑스·레닌主義의 原理를 受容, 民族問題와 階級問題를 同一視

- 民族問題는 하나의 孤立된 問題가 아니라 全体 革命 問題의 一部

○ 이러한 基礎위에서 民族問題의 內容과 特性도 社會와 歷史의 變遷에 따라 變하는 것으로 把握

○ 따라서 窮極的으로는 民族 消滅論을 主張하고 있으나, 共產化 革命의 遂行上 中共政權 樹立前에는 少数民族의 分離權 認定, 中共政權 樹立後에는 分離權 否定

- 分離權 認定条文

“中華소비엘은 各少数民族의 分離 및 独立国家를 建立할 完全自決權을 承認 한다” ( 1931年 中華소비엘憲法 第14条 )

- 分離權 否定条文

“中華人民共和國은 統一된 多民族国家이다. ... 民族自治地方은 中華人民 共和国의 不可分の 一部이다.”

( 1978年 中共 憲法 第4条 )

## 2. 蘇聯의 少数民族政策

### 概 觀

- 蘇聯內 少数民族의 總數는 大分하면 50~60이 되고 細分하면 170~180에 달함.
- 따라서 蘇聯은 世界 어느 나라와도 比較할 수 없을 程度의 多民族國家로서 유럽系 아시아系 人種이 잡다 하게 混合되어 民族問題가 대단히 複雜 미묘함.

### 가. 少数民族政策의 變遷過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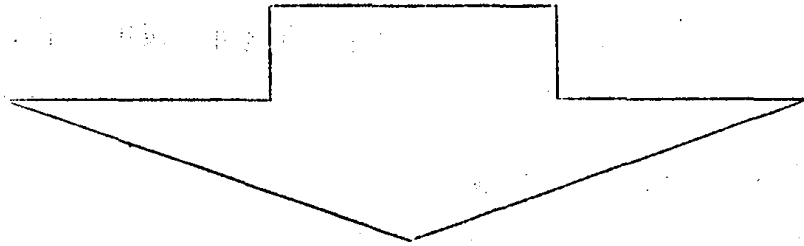
#### (1) 帝政 러시아時代의 少数民族政策

ㄱ) 帝政러시아는 짜르전제, 그리스정교, 대러시아民族國家 形成 등 三大國是를 標榜, 대러시아인 이외의 民族은 完全히 異 民族으로 看做하여 殖民地民族으로써 搾取의 對象으로 삼았음.

ㄴ) 모든 異 民族에 대해서 대러시아化를 強要하고 아시아系 諸民族은 고의로 米개상태에 방치시켜 두었음.

ㄷ) 따라서 러시아인 슬라브족에 속하면서도 같은 그리스정교를 신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인과 백러시아인까지도 異 民族으로써 박해를 가했음.

(라) 또한 그리스 정교만을 國敎化하여 우대하고 회교  
기타의 宗敎를 모두 邪敎로 看做하여 차등을 두었으며  
(마) 대러시아어(러시아어)만을 正式言語로서 인정하고  
기타 諸民族語는 使用을 禁止 내지는 制限하였음.



帝政러시아의 少數民族政策은 被支配民族에게 憲法上  
名目上의 權利平等을 認定하였으나 그 實際는 差別  
政策으로 나타났음.

## (2) 革命期の 少数民族政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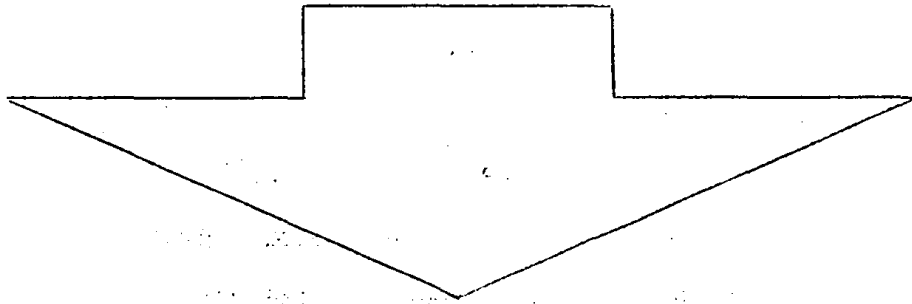
### (가) 革命期 少数民族政策의 基調

- 蘇聯의 少数民族政策은 레닌이래의 일관된 傳統인 “民族自決主義”를 그 基盤으로 삼고 있음.
- 民族自決의 基원
  - 淵源 : 마르크스主義에서 유래  
( 제 2 차 인터내셔널 제 4 차 회의 - 1896 )
  - 目的 : 資本主義諸國에 壓속된 被壓民族의 독립운동자극을 위해 제창
- 民族自決主義의 理論的 根柢
  - 프로레타리아는 大規模國家를 希望한다는 理論的 前提에서 出發
  - “ 프로레타리아는 中世 封建의 各個 獨立主義를 좋아하지 않고 可能的 廣範圍한 領域에서 經濟的 團結을 圖謀하여 資本家와의 鬪爭을 大規模로 展開하려고 한다. 따라서 少数民族에게 完全한 自決의 權利를 준다고 해도 러시아가 瓦解될 念慮가 없다. 오히려 그들에게 寬容적인 態度를 보이는 것이 國內의 團結을 強化하고 러시아를 보다 一層 大國으로 만드는 役割을 한다 ”

## 내 레닌의 少数民族政策

- 레닌은 1917년 "4月的 테제"를 基礎로 해서 同年 9月 "우리의 綱領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의 使命"을 發表하여 볼셰비키의 民族政策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음.
  - "프로레타리아黨은 모든 民族의 러시아로부터의 完全한 分離의 自由를 宣言하고 그것을 빨리 實現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 "프로레타리아黨은 諸民族에게 強制를 가하지 않고 諸民族의 勤勞大衆이 自發적으로 結集하는 것을 期待한다"
- 그후 定型화된 레닌의 少数民族政策의 根本原則
  - 러시아내의 모든 民族과 平等의 自由保障
  - 分離와 獨立國家建設의 自由를 包含한 民族自決權 認定
  - 일체의 民族的 및 宗教的特權과 制限의 철폐
  - 少数民族과 人種別 諸集團의 自由로운 發達圖謀
- 레닌의 民族分離의 概念
  - 레닌은 러시아내의 諸民族들에게 러시아로부터의 分離의 自由를 賦与할 것을 主張하였으나 동시에 그것을 "結合을 위한 分離"라고 看做하였음. 즉 한편으로는 諸民族의 分離를 圖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民族을 다시뭉쳐 帝政러시아에 못지 않은, 오히려 그 이상의 大國家를 建設할 것을 構想하였음.
  - 따라서 레닌에게 있어서 分離라는 概念은 被壓迫民族이 長期間 동안 러시아에 대해 가져온 감정을 무마시켜 주기 위한 分離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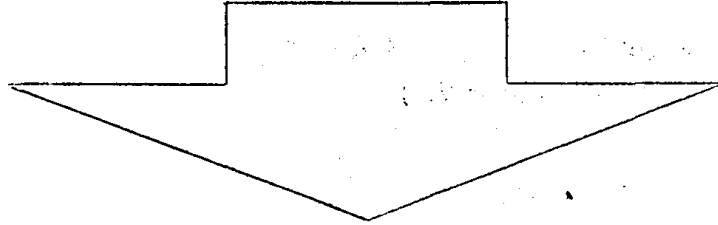




레닌의 少数民族政策은 少数·被压迫諸民族들에게 自決權  
賦与를 통해 反革命運動을 防止하고 各民族을 援助하여  
民族共和国, 民族自治洲등을 建設하면서 實際로는 各民族  
의 共產主義者들의 손에 장악시켜 各民族을 소비에트化  
하여 그들을 單一國家로 統合시키려고 하였음.

## 태 스탈린의 少数民族政策

- 스탈린의 民族政策觀도 基本的으로 레닌의 民族政策理論에 立脚하고 있음. 즉 民族分離의 福利를 各民族의 事情에 따라서 認定할 것을 主張하였음.
- 스탈린은 憲法(1924年 第2次憲法)에서 少数民族의 蘇聯邦加入과 脫退를 制度的으로 保障하였음.
  - “蘇聯邦은 모든 民族들의 自發的인 聯合體이다”
  - “蘇聯邦에의 加入과 脫退는 完全히 自由이다”
- 그러나 스탈린은 少数民族이 偏狹한 民族主義에 흐르는 것을 警戒하였음.
  - 少数民族에게 러시아語를 強要하는 것에 反對
  - 少数民族固有의 民族語에 의해 教育을 받을 기회를 賦与
  - 各民族의 發達을 促進시켜 窮極的으로 各民族이 社會主義建設에 보다 잘 寄与할 수 있어야함을 主張
- 스탈린은 1930年 第16次 蘇聯共產黨大會에서의 報告 가운데 蘇聯은 形式에 있어서는 民族主義, 內容에 있어서는 社會主義的 文化의 發達을 設計하여야함을 主張하였음.
- 스탈린의 民族政策의 理論的 根拠
  - “브르자帝國에 있어서의 民族文化는 形式에 있어서는 民族的이고 內容에 있어서는 브르자적 文化이다. 그러나 蘇聯과 같은 프로레타리아 獨裁國家에 있어서의 民族文化는 形式에 있어서는 民族的이나 內容에 있어서는 社會主義的 文化이다”



스타린은 民族分離權을 認定하면서도 그것이 프로레타리아  
階級の 發展을 阻害 시킬것을 憂慮.

(라) 레닌과 스탈린의 少数民族政策比較	
레 닌	프로레타리아 世界革命理論에 立脚한 普偏的이고 完全한 民族自決權 및 分離權認定
스 타 린	一國社會主義理論에 立脚한 不完全하고 制限된 民族分離權認定

(3) 브레즈네프体制下的 少数民族政策

ㄱ) 少数民族에 대한 憲法的保障 ( 1977年 러시아革命 60周年 記念憲法 )

○ 憲法第 4 章 36 条

- 蘇聯내 모든 民族은 平等하다.
- 모든 民族은 固有의 民族語使用의 기회를 保障한다.
- 上記의 權利는 人種的, 民族的바탕을 理由로 침해받지 아니하며 그것을 理由로 어떤 形態의 特權도 認定되지 아니하며, 또한 人種的, 民族的 배타성 및 敵對感을 조장하거나 시위하는 자는 法律에 의해서 処罰을 받는다.

ㄴ) 少数民族에 대한 蘇聯指導層의 見解  
( 새憲法 심의과정중 指導層階級에 의한 論議事項 )

- 憲法條文에 하나의 團一化된 民族概念을 規定할 것
- 民族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概念을 철폐할 것
- 그렇지 않으면 民族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主權을 憲法的으로 制限하는 規定을 挿入할 것
- 蘇聯最高會議 民族委員會의 活動을 沮止시킬 것
- 그렇지 않으면 民族委員會 代身에 聯合委員會制度를 採択할 것 등을 提議

대 브레즈네프의 少数民族에 대한 見解

( 1977年 10月 4日의 新憲法에 관한 報告書 要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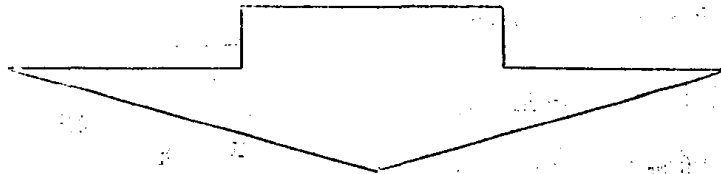
- 소비에트 社會主義 聯邦共和國의 政治的, 社會的 統合은 民族的 個別性的 喪失을 意味하지는 않음.
- 蘇聯의 民族統合을 위해서 人爲的인 措施는 오히려 危險한 方向에로 나아가게 됨.
- 社會主義建設을 優先的으로 實現한 후에 民族問題를 成功的으로 解決해야 함.
- 共產主義를 建設하는 過程속에서 蘇聯내의 多様な 民族들을 한데 묶고 서로간의 精神的 生活을 풍요롭게 하는 作業은 繼續되어야 함.

대 少数民族政策의 實際面

- 新憲法の 公布에도 不拘하고 蘇聯의 各 機關紙 및 刊行物들은 蘇聯의 모든 共和國과 民族들의 団합을 尊重할때에 항상 러시아인이 指導的 民族이라는 점과 제일의 民族이라는 점을 強調하고 있음.
- 또한 蘇聯共産黨 및 政治機構의 高位級幹部는 大部分이 러시아인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아직도 大 러시아主義가 存在하고 있음.
- 서로 다른 民族語를 共通言語인 러시아語로 代置시키면서 窮極的으로 러시아를 하나의 民族, 하나의 言語로 만들기 위해 可能的한 모든 手段方法을 動員하고 있음.

(가) 브레즈네프体制의 少数民族政策의 特性

- 強力한 行政府中心의 中央執權体制에 立脚
- 非러시아인에 대한 政府要職 任命制부활
- 民族政黨指導者 및 公務員들의 蜂起에 대한 과감한 숙청단행
  - 조지아共和國 黨第1書記 V.P.Mzhavanadze가 自給自足 經濟体制을 圖謀하였다는 罪目으로 숙청. 기소
  - 우크라이나共和國 黨第1書記 Petr Shelest가 우크라이나의 民族感情을 鼓擡했다는 罪目으로 숙청. 기소
- 民族들의 蜂起와 反抗問題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說得보다는 刑罰為主
- 民族의 單一化, 言語의 單一化를 통한 窮極的 目標實現을 위해 短期的 戰略으로써 柔和政策 使用



- 蘇聯의 少数民族에 대한 法的制度的 測面과 實際的 測面에서의 表裏不動性은 전형적인 大러시아 國粹主義의 表出임.
- 그러나 브레즈네프体制下에서 과격한 民族彈壓政策이나 人爲的인 統合은 圖謀되지 않고 있음.
- 統合을 위한 努力은 繼續 경주되고 있으며 또한 과격한 思想이 항상 存在하고 있음.
- 蘇聯政府에 協助的 또는 反抗的 民族指導者들에 대한 “엇과 채적”의 方法을 適用하고 있음.

## 나. 少数民族의 現況

### (1) 少数民族의 現況

○ 소련은 1970年 現在 20개의 自治共和国과 15개의 聯邦共和国으로 構成되어 있음.

— 聯邦共和国名称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러시아, 에스토니아, 조지아, 카자흐, 키르히즈,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다비아, 러시아, 타드직, 투르크멘, 우크라이나, 우즈벡

— 自治共和国名称 : 아브카즈, 아자르, 바쉬키르, 부리얏, 체첸잉구스, 추바슈, 다기스탄, 카바르디-발카, 칼딕, 카라칼팍, 카레이안, 코미, 마리, 모르드빈, 나키체반, 북오셋트, 타타르, 투반, 우드모르트, 야쿠트

○ 蘇聯邦共和国形成의 過程

— 1922年末 러시아,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외코카서스의 4개 소비에트共和国이 聯合하여 蘇聯邦 즉 소비에트社会主义共和國聯邦 結成.

— 1924年 中央아시아의 우즈벡, 투르크멘共和国이 加盟

— 1929年 외코카서스의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젤바이잔, 러시아共和国의 카자흐, 키르히즈 自治共和国이 各各 聯邦構成共和国으로 加盟.

- 2次大戦中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몰다비아  
共和國이 追加로 加盟.

- 蘇聯의 總人口는 1977年現在 約2億5千9百萬名에 達함.  
- 人口構造에 依하면 러시아民族이 全體人口의 5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슬라브人(러시아인, 백러시아인, 우크라이  
나인 包含)은 全體의 약 4/5(正確히 74%)를 차지하고  
나머지 約 4分の1(26%)이 少数民族으로 構成되어  
있음.



各 共和国別 人口分布 現況

( 1970年度 基準 )

共 和 国	人 口 数 字	全體人口에 대한 比率(%)	各 共和国別 러시아인의 比率%
러시아 共和國	107,747,630	83.5	82.8
우 크 라 이 나	9,126,331	7.1	19.4
카 자 흐	5,521,917	4.3	42.4
우 즈 벅	1,473,465	1.1	12.5
벨로 러시아	938,161	0.7	10.4
키 르 히 즈	855,935	0.7	29.2
라 트 비 아	704,599	0.5	29.8
아 켈 바 이 드 잔	510,059	0.4	10.1
몰 다 비 아	414,444	0.3	11.6
조 지 아	396,694	0.3	8.5
타 드 직	344,109	0.3	11.9
에 스토 니 아	334,620	0.3	24.7
루 르 크 맨	313,079	0.2	14.5
리 투 아 니 아	267,989	0.2	8.6
아 르 메 니 아	66,108	0.1	2.7
蘇 聯 全 體	129,015,140	100	53.37

資料出處 : Itogi 1970:IV:321;Nar. Khoz, 1972:516-681

各 共和国別 人口增加率

(人口 1,000 名을 (單位) 基準, 1970 年度)

共 和 国	出生数字	死亡数字	人口增加数字
러시아共和国	14.6	8.7	5.9
우크라이나	15.2	8.9	6.3
벨로러시아	16.2	7.6	8.6
우즈베키스탄	33.5	5.5	28.0
카자크스탄	23.3	6.0	17.3
조지아	19.2	7.3	11.9
아제르바이잔	29.2	6.7	22.5
리투아니아	17.6	8.9	8.7
몰다비아	19.4	7.4	12.0
라트비아	14.5	11.2	3.3
키르기지아	30.5	7.4	23.1
타프치키스탄	34.7	6.4	28.3
아르메니아	22.1	5.1	17.0
투르크메니스탄	35.2	6.6	28.6
에스토니아	15.8	11.1	4.7
蘇·聯 全 體	17.4	8.2	9.2

資料出處: Narodnoe Khoziast USSR g., pp.50-51.

(2) 少数民族의 탄압事例(時系列別)

<p>1929年 4月 - 7月</p>	<p>蘇聯 KGB 의 전신 OGPU 가 小規模 우크라이나 地下組織을 摘發, 約 5千名가량 체포</p>
<p>1930年 3月 - 4月</p> <p>1929年 - 33年</p> <p>1931年 2月</p> <p>1932年 - 34年</p> <p>1935年 - 38年</p>	<p>45名의 "우크라이나 解放聯合會" 및 "우크라이나 靑年聯合會" 會員들을 반란 폭동모색을 구실로 체포</p> <p>우크라이나 및 북부코카서스地域에 強制集團化實施를 위한 數百萬名의 우크라이나人 학살 내지는 강제추방</p> <p>우크라이나 民族센터의 會員들을 強制追放</p> <p>우크라이나地方 黨幹部의 80% 및 26만여 黨員들을 숙청, 유배 또는 처형</p> <p>大規模테러단행, 2百萬餘名의 大衆을 체포 또는 처형, 우크라이나 黨中央委員會 및 政治局 活動을 근절시킴.</p>
<p>1941年 6月 및 1945年 - 51年</p>	<p>발틱共和國들(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로부터 35萬名가량의 大規模追放 斷行</p>

<p>1943年 - 44年</p>	<p>회교도民族 大規模 追放斷行, 카라차이族, 발카族, 체첸族, 잉구스族, 메스트 헤티안族, 크림리아 타타르族, 蒙古의 칼미트族들이 獨逸軍과 協力했다는 理由로 全人口를 시베리아나 中央아시아로 追放했음.</p>
<p>1944年 - 53年</p> <p>1945年 4月 27日</p> <p>1946年 - 49年</p> <p>1947年 - 48年</p>	<p>리투아니아 自由鬪爭主義者들인 "숲속의 同胞들" 約 5萬名을 소비에트體制와 對항했다는 理由로 살해.</p> <p>우크라이나와 백러시아가 스탈린의 要請에 의해 聯邦國家 創設會員國이 될것을 強制 수락.</p> <p>西部 우크라이나地域 住民의 約 50萬名이 強制追放</p> <p>蘇聯秘密警察이 우크라이나 民族戰線 地下 組織 強打.</p>
<p>1949年 - 51年</p> <p>1951年 - 52年</p>	<p>에스토니아 政黨指導者들 숙청.</p> <p>조지아共和國政府가 USSR로부터 脫皮意圖를 公式적으로 提出했다는 理由로 政府要人과 政黨指導者들을 체포, 25年間의 勞動者 수용소 복역에 처함.</p>

1958年12月	우크라이나 解放聯合政党的 創設會員 체포, 秘密재판에 회부.
1959年- 62年	라트비아 政党指導者들 숙청
1960年11月	우크라이나 労働者農民聯合의 指導者 레프 루키아 넝코 및 會員들 체포, 루키아넝코는 死刑宣告, 나머지 會員은 7年~ 15年刑에 処함.
1961年	우크라이나 民族委員會 結成멤버 "이반 코 발" 및 "보단 흐리트시나"를 숙청, 기타 멤버들은 5年~ 15年刑에 처함.
1961年- 63年	우크라이나 各處의 地下組織구름 摘發, 그들 중 르보프地域의 指導者 "프룻츠시프"를 총살형에 처함.
1965年8月末- 9月初	蘇聯秘密警察이 우크라이나의 지위문제 향상 을 主張하는 우크라이나 자체발간물 Samizdat의 編輯人 및 刊行人들을 대거 수색 및 체포
1967年- 68年	우크라이나 民族戰線 結成者 및 會員을 20年 내지 11~ 17年刑 宣告.

다. 少数民族의 問題点

(1) 問題点 分析의 視角

○ 蘇聯의 少数民族 政策과 蘇聯 政治 體制 安定性과의 關聯性 與否 檢討 必要

— 리차드 파이프 : 蘇聯은 不平等한 民族 政策으로 因해 早晚間에 15個 共和國들의 서로다른 路線에 立脚해서 分割될 것이다 라고 보는 觀点.

— 제레미·아즈라엘 : 蘇聯은 民族間의 분규로 因해 崩壞 直前に 놓여질 危險이나 혹은 根本的인 政治的 變革을 經驗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觀点.

○ 蘇聯의 少数民族 政策이 國際的紛争으로 擴大될 可能性 與否 分析 必要

(2) 对内的 問題点

ㄱ 少数民族政策의 不平等性 露呈

- 蘇聯의 少数民族政策의 不平等性은 各 民族共和国에 대한 差別待遇에서 나타나고 있음.
  - 소비에트聯邦共和国 全體 體育大会에서의 立場順序 및 共和国別 国旗 掲揚順序에서 나타남.
  - 슬라브系의 러시아共和国, 백러시아, 우크라이나共和国 을 中心으로 先頭に 내세움.
  - 이러한 양상은 蘇聯에서의 러시아슬라브의 優位性의 一面을 보여줌.
- 蘇聯은 러시아民族의 優越性을 과시하기 위해 러시아 語에 대한 強調點을 두고 있음.
  - 러시아語는 偉大한 러시아民族의 말이다.
  - 偉大한 러시아文化에 接近하려면 러시아語를 通해야 만 한다.
  - 러시아語는 프로레타리아의 國際語이며 社会主義의 標準語이다.
  - 이러한 強調現象은 2次大戰 直前부터 더욱 노골화 되어 現在 15個 聯邦共和国內에 러시아식 字母를 使用하는 것이 10, 라틴式字母가 3, 民族的字母가 2임.

- 蘇聯政府는 러시아民族의 優位性 強調를 위해 러시아文化의 補給, 러시아語의 獎勵등을 통해 蘇聯의 諸民族들에게 러시아와의 合併을 독려하고 있음.
- 이러한 強制를 수반한 獎勵現象은 少數民族의 反抗 및 무장봉기의 불씨가 되고 있기는 하나 그 自體가 體制 安定上의 威脅要素는 되지 못함.
- 蘇聯은 時間의 흐름에 따라 過去의 러시아國家와 類似하게 될 것이고 實際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음.
  - 러시아民族은 數와 質에 있어서 다른民族을 단연 압도
  - 蘇聯의 國家運營은 實際로 러시아인 中心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蘇聯을 등에 업고 있는것은 러시아인임.

(나) 러시아民族과 우크라이나民族間 對立問題

- 우크라이나民族은 蘇聯全體人口의 16.9%를 차지하지만 人口數字面에서 러시아民族 다음가는 位置를 점하고 있음.
- 러시아民族은 우크라이나民族과 歷史적으로 오랜 갈등관계를 維持해 오면서 수십차례에 걸쳐 탄압을 감행해 왔으며 반면에 우크라이나民族의 政黨指導者나 共和國政府 幹部들은 蘇聯中央政府에 대항해서 政治的 自律성과 보다 많은 利權의 割當을 主張해 왔음.



○ 그러나 이러한 民族間 對立問題가 심각한 體制安定의 不安要素로는 作用치 않고 있는바 그 原因은 다음과 같음.

— 우크라이나 共和國의 行政官僚 및 테크노크랫트들은 中央의 蘇聯政府에 政治的 支援問題와 關聯해서 깊이 依存하고 있음.

\* 蘇聯의 政治局員 15名中 2名이 우크라이나出身

— 우크라이나 과학자 및 테크니컬 인텔리겐차들이 점점 러시아化되고 있는 同時에 그들이 求心的 作用을 하면서 中央政府에 기울어지는 경향을 띠고 있음.

— 우크라이나 共和國 바깥에 散在한 數百萬의 우크라이나 人들이 現實的인 理由로 그들 스스로를 러시아人으로 간주.

— 이와같이 우크라이나 民族指導者 및 政治엘리트가 蘇聯의 指導層에 잘 融和되어 가고 있으므로 특정의 境遇에 있어서만 政治的 自律權主張이 提起됨.

#### (대) 슬라브民族과 회교도民族 間의 問題

○ 슬라브民族 ( 러시아인, 백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의 人口는 蘇聯全體人口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나 人口增加 率은 減少하고 있는 反面, 全體人口의 10分の 1을 점

한 蘇聯內 회교도民族(우즈베크인, 카자크인, 타드지크인, 투르크멘인, 키르히즈인, 아제르바이드잔인)의 人口增加率은 上昇하고 있음.

- 이러한 增加趨勢는 슬라브와 회교도간의 潜在的 对立要因이 되고 있음.
- 그러나 소비에트 회교도들은 슬라브系 民族과 政治支配權問題를 놓고 競争相對者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大部分의 中央아시아 地域의 民族들이 高等教育水準 發達の 影響으로 러시아인 支配下의 共產主義 文化圈에 친숙히 呼應하는 傾向이 점차 增加하고 있는 實情임.

#### (4) 地域社会 開發의 問題

- 産業施設이 잘 갖춰지지 않은 中央아시아地域에는 高度의 人口번식율에 의해 人力이 점점 增加하고 있음에 반해 産業地域에서의 労働者 減少現象이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人力分布現象과 産業施設 發達地域이 서로 一致하지 않기 때문에 蘇聯當局은 中央아시아地域에 産業施設을 建設하는가 혹은 中央아시아地域의 労働力을 分散하는가 하는 問題點을 안고 있음.

- 특히 地域 社会 開發의 問題는 都市와 地方間의 격차, 精神 労働者와 肉體 労働者間의 격차, 民族間의 敵對 意識을 조 장하는 要因으로 作用할 可能性이 있음.
- 이러한 蘇聯의 對內的 問題點을 칼·도이취의 統合理論 의 觀點에서 볼 때에는 蘇聯 政治體制 安定의 逆機能的 要因이 될 수도 있겠으나, 實際로는 高度로 中央 執權化 된 政治 動員 體制속에서 下位 體制의 自律性이 무시된 채 로 蘇聯은 政治的 安定性을 維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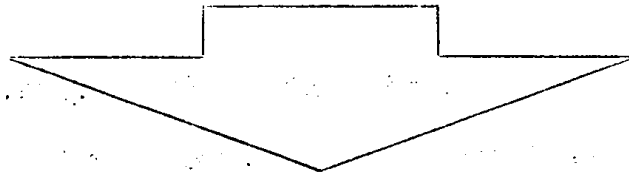
(3) 對外的 問題點

<p>美 蘇 關 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대인 移民問題에  대한  美國의  介入  및  少數民族  인권  탄압문제를  圍繞한  대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5 ~ 76年 사이  뉴욕의  各種  言論紙에  對蘇  비난  論文  게재</li> <li>- 1971年  키에프의  言論機關紙에  유대인과  우크라이나  民族間의  相互協力   비난  및  對  美   비난  기사  게재.</li> </ul> </li> </ul>
<p>中 蘇 關 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約 1,500마일에 達하는  中·蘇  國境  地域에  接하는  蘇聯의  카자흐,  키르히즈,  타드직  共和  國과  中共의  新疆  地域間의  國境  紛爭이  날카  롭게  對立</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신강地域의 " 위구르 " 人들과 蘇聯의 카자흐人들은 비슷한 辺方言語와 歴史的 배경을 共有하는 까닭에 兩民族間의 所屬 關係가 不分明함.</li> <li>- 兩國間의 對立은 서로 雙方의 少數民族 탄압事例에 대한 비난 및  충돌질로 나타나고 있음.</li> <li>- 蘇聯은 中共의 위구르 탄압사례 비판 및 民族指導者들을 煽動.</li> <li>- 中共은  우크라이나人 탄압사례 비판 및 煽動</li> </ul>
<p>東 歐 關 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蘇聯의 国内的 民族問題는 東歐圈과의 關係形成에 影響을 미침.</li> <li>○ 同時에 蘇聯의 東歐圈 諸國들과의 兄弟的 友好關係는 国内的 民族엘리트들에게 模範的인 귀감이 되고 求心的인  경향성을 심어줌.</li> <li>○ 反對로 對東歐圈諸國 유대강화의 失敗는 유로комму니즘의 異端性을  조장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国内民族 엘리트들에게 思想的 影響을 끼침.</li> </ul>

第 3 世界  
国家 關係

- 蘇聯指導層은 第 3 世界 国家群들에 대해 蘇聯內 諸民族의 自由와 平等保障에 대한 確信을 주기 위해 努力 傾注.
- 이러한 努力은 蘇聯의 第 3 世界諸国 이데올로기의 指導的 役割 担当者로서의 優越性 과시



- 蘇聯의 国内民族政策問題와 關聯한 外國의 直接的인 간섭은 限界가 있다.
- 따라서 少数民族問題를 圍繞한 國際的 紛争擴大可能性은 희박하다.

라. 在蘇교포의 實態

概 觀

- 蘇聯에 居住하는 韓國교포의 數字는 1970年 蘇聯當局 實施 國勢調查統計 人口調查에 依하면 357,507 名에 달함. ( 1959年 當時의 總計 313,735 名에 比해 14 % 增加 )
- 地域別分布는 中央아시아 地域에 約 66.7 %, 極東 地域에 約 33 %, 西部 地域에 約 0.3 %가 散在

(1) 移住 動機

(가) 蘇聯 本土

○ 經濟的 理由

- 旧韓末 1864年 全國을 휩쓴 기근으로 함경도 北方의 韓人들이 만주와 연해주등지에서 一時 定着하기 始作한데서 비롯함.

○ 政治的 理由

- 旧韓末 관료들의 橫暴를 避하기 위해 혹은 韓日

습邦으로 亡國의 限을 품고 시베리아 땅에 定着.

- 當時 러시아는 東進政策의 一環으로 시베리아 開拓을 위한 韓人들의 移民을 奨勵
- 그後 蘇聯當局의 少數民族政策에 의해 中央아시아地域으로 強制移住.

#### (나) 사할린 地域

- 2次大戰末期 日本政權에 의한 韓人들의 強制勞力勤員에서 비롯함.
- 日·蘇間의 戰後處理問題로 인한 사할린의 領土權變更으로 移住됨.

#### (다) 小結論

- 蘇聯本土의 韓國교포는 移住當時 現實에 不滿을 품은 自意的移民으로써 定着後 그런대로 安定된 生活을 향유.
- 사할린교포는 強制에 의한 移住로서 아직도 韓國 또는 日本으로 歸還을 希望.

(2) 分布現況

(가) 地域別 分布現況

韓民族 分布現況

( 單位 : 名 )

位 置	共 和 国	都 市・地 方	人 口
西 部	러 시 아	모스크바	1,000
		레닌그라드 타간로그	
中 部	우즈베크	타슈켄트	151,000
		코레준 페르가나	
	카 자 크	크질 . 오르다	78,000
		알마 . 아타 . 오브라스츠	
		키르히즈	
타 지 크	타지크	2,400	
투르크멘	아슈카바드	1,900	
東 部	러 시 아	사할린	43,000
		하바로브스크 프리모르스키 . 크레이스	60,000
		나호드카 브라디보스토크	
		이르쿠쯔크 노보시비르스크	17,000



(나) 地域別 都市와 農村的 人口分布比率

	都 市	農 村
蘇 聯 全 體	68 %	32 %
러 시 아 共 和 国	76.9 %	23.1 %
프 리 모 르 스 크 領	69.8 %	30.2 %
하 바 로 프 스 크 領	61 %	39 %
캄 차 카 地 域	76 %	24 %
코 르 약 地 域	63 %	37 %
사 할 린 地 域	84 %	16 %

(3) 生活実態 및 法的地位

(가) 蘇聯本土 韓國人

○ 言語生活

各 地域의 都市・農村別 言語生活

地 域	区 分	韓國語를 母 國語로 생각 하는 比率%	다른 土着言 語를 母國語 로 꼽는 比率%	2 個國語 併用 比率%
蘇 聯	都 市	64	36	
	農 村	77	23	53
러시아共和國	都 市	65	35	45
	農 村	72.8	27.2	39.7
프리모르스크領	都 市	39	61	34
	農 村	50	50	42
하바로프스크領	都 市	82	18	13
	農 村	89	11	10
캄차카地域	都 市	59	41	50
	農 村	67	33	61
코르약地区	都 市	62	38	
	農 村	44.3	55.7	44.3
사할린地域	都 市	59	41	50
	農 村	67	33	61

- 在蘇韓人은 家庭에서는 韓國語를, 學校 및 職場에서는 러시아語를 併用하고 있고, 따라서 蘇聯內 韓人 2世는 韓國語와 러시아語를 尙舊하게 구사
- 蘇聯當局의 少數民族에 대한 宥和政策으로 民族固有의 言語와 文化를 尙舊
- 그러나 2世, 3世의 韓國語使用 比率이 漸次 減少하고 있음.

#### ○ 教育

- 在蘇韓人의 大部分이 蘇聯市民權을 取得하고 있기 때문에 餘他民族과 同等하게 教育을 받을 權利를 가짐

\* 8年間の 各種 普通義務教育

\* 卒業後 上級學校進學 可能

\* 러시아語와 함께 韓國語를 통해서도 教育

#### - 教育內容

\* 共產主義 教育理念에 立脚한 社會主義的 人間育成 為主

#### - 教育機關

\* 1911年 蘇聯內에 10個의 非附屬校제통의 韓國人學校 存在

\* 그後 1932年까지 380個의 韓國人學校에 약

34,000名의 學生이 存在, 그밖에 수십개의 成人教

育機關 및 圖書館이 存在

- \* 蘇聯当局의 諸民族語에 의한 教育許容으로 韓國人 學校와 상존可能.

○ 職 業

- 1930年代까지 大部分의 韓國人들은 中央아시아地域에 定着하여 주로 農業에 從事
- 最近 在蘇韓人들의 都市集中傾向으로 各種 技能職分野에서 從事하는 사람들이 增大
- 在蘇韓인들이 從事하는 主要職業

- \* 集團農場勞動者, 勞動組合員, 行政事務員, 醫師, 金屬加工技能工, 工場勞動者 및 技術者, 圖書館從事員, 觀光業所 通譯 및 案内役, 放送局아나운서, 芸能人 및 作家등

- 在蘇韓人들 가운데는 政界, 學術界에서도 頭角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음.

- \* 카자흐共和國의 商業部相

- \* 카자흐共和國 最高評議會 代議員

- \* "알마.아타"所在 카자흐共和國 科學院幹部

○ 法的엔 地位

- 蘇聯은 國內 諸民族에 대해 現行 蘇聯邦憲法 第4章 36條의 規定에서 蘇聯內 諸民族의 自由와 平等

의 權利를 認定하고 있음.

- 따라서 蘇聯의 韓國 교포들도 비록 實際面에서는 러시아民族을 除外한 다른 諸民族의 境遇에 準하지만 오랜 期間동안의 現地生活로 因해 蘇聯邦國民으로서의 權利와 義務를 行使하고 있음.

(4) 사할린 교포들의 生活實態는 国籍取得別에 따라 현저한 差異가 있음.

○ 蘇聯国籍取得 교포

- 生活面에서 蘇聯人과 同等하며 下等의 制約도 받지 않음.

\* 国籍取得動機

- × 蘇聯女性과의 結婚
- × 強制徵用이 아닌 自意에 의한 교포
- × 日本에서 移住한 교포
- 職業選擇도 自由意思에 따라 決定
- 旅行에 있어서도 節次만 밟으면 蘇聯本土 어디나 可能
- 子女들의 教育에 있어서도 蘇聯人과 何等의 差別 없음.

○ 北傀国籍 ( 公民証 ) 取得 교포

- 教育이나 就業 및 旅行에 있어서 蘇聯国籍者와 同等한 待遇를 받음.
- 그러나 사할린을 떠나 北韓을 旅行코자할 때는 사할린官厅의 許可를 얻어야 함.

○ 無国籍者 ( 非公民証者 )

- 生活面에서는 蘇聯国籍者나 北傀国籍者와 別差異 없음.
- 大部分 高齡에 達한 独身者로서 集團的生活, 탄광이나 国营農場 및 国营工場에 從事
- 生活区域에서 12 km 이상 旅行의 境遇 사할린官厅의 許可要.
- 教育面에서도 上級学校 進学이 不可, 따라서 어린나이에부터 国营農場이나 工場, 혹은 建築運輸部門에 從事.

사할린 교포들의 国籍取得別 推計

( 43,000 名 基準 )

国 家 別	人 口 数	比 率 (%)
蘇 聯 国 籍	約 10,750 名	25 %
北 傀 国 籍	約 27,950 名	65 %
無 国 籍	約 4,300 名	10 %

사할린 교포의 취업실태

( 30,500 名基準 )

区 分	人 員 数	比 率 (%)	月 収 入
국 영 농 장	約 19,300 名	約 63.2 %	50- 60 루블
建 築 , 운 수	約 7,000 名	約 22 %	150-200 루블
사 무 직 , 기 타	約 4,200 名	約 14.8 %	200- 300 루블

( 1 \$ : 0.7 루블 )

○ 法 的 인 地 位

- 사할린 억류 韓国人은 戰後 處理問題로 惹起된 領土權 變更을 原因으로 發生된 特殊한 境遇에 처해있는 者들 로서 形式上 自意로 取得한 任意国籍임에도 不拘하고 原因發生以前의 第 1 母国인 韓政府의 外交的 保護의 對 象이 될 수 있는 地位에 있음.

#### (4) 在蘇교포의 韓國觀

##### (가) 蘇聯本土 韓國교포의 韓國觀

- 오랜歲月에 걸친 現地生活을 통해 現地體制에 適應하게 되기는 하였으나 自己가 속하는 民族에 대한 共同意識과 그 鄉土文化에 대한 鄉愁를 지니고 있어서 그들의 母國에 대한 귀속감을 存続시켜오고 있음.
- 日本軍國主義 統治와 스탈린의 統治를 實際로 體驗한 在蘇韓人들은 北韓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은 反面 韓國政府에 대해서는 興味와 好感을 가지고 있음.

##### (나) 사할린교포의 母國觀

###### ○ 韓 國 觀

- 韓國의 發展像을 讚揚하며 韓國에 대한 認識 및 支持.
- 國家元首에 대한 尊敬 및 韓國의 統一方案과 그 正當性 支持
- 韓國政府의 南北對話努力에 대한 認識 및 6·23 宣言 支持
- 韓國政府의 사할린교포 歸還을 위한 努力認識
- 故國에 대한 향수



○ 北 傀 觀

- 金日成偶像化에 대한 認識 및 北傀體制에 대한 不信
- 北傀의 經濟과 탄認識 및 北韓住民生活의 非참성 동정
- 北傀의 沙哈린 교포에 대한 無關心 認識
- 北傀가 祖國平和統一을 원하지 않고 武力도발을 감행  
코자함을 認識

3. 中共의 少数民族政策

概 觀

○ 少数民族의 構成과 居住地

中共內 少数民族의 總數는 54 個이며 全體人口의 6%,  
全領土의 50~60%를 占하고 있으며 地下資源이 豐富  
한 辺方地域에 主로 居住.

○ 少数民族政策의 重要性

- 中國의 社會主義建設이라는 現實的인 意味
- 中·蘇 兩國의 中間地帶를 占하고 있는 少数民族의 歸  
屬을 둘러싼 紛爭問題 尙存
- 少数民族政策의 成敗가 아시아, 아프리카 諸民族에게 미  
치는 影響

○ 少数民族政策의 目標

모든 民族이 단결하여 제국주의와 鬪爭하고 民主主義革命과 社会主義革命을 推進.

○ 少数民族政策의 原則

蘇聯의 “民族区域自治” 政策을 根本으로 하고 여기에 中國革命의 全體利益을 結合.

○ 少数民族政策의 內容

- 少数民族의 平等權利 保障
- 民族團結強化
- 民族区域自治實施
- 少数民族幹部 培養
- 少数民族의 言語文字 및 風俗習慣 尊重
- 少数民族의 經濟, 文化發展 協調.

가. 少数民族政策의 變遷過程

(1) 第 1 段階: 中共政權樹立 以前

- 民族問題를 내세워 國府의 反共銳鋒을 回避하고 各 少数民族을 종용 獨立케하고 各党派를 分열시켜 그들의 爭取를 有利하게 하는 한편 自己들의 名聲을 擴張 武力으로 大陸을 剽掠하는 陰謀를 遂行.

- 當時 中共의 少数民族政策은 “革命段階”의 必要에 따라 여러차례 變更
  - “分離權” 認定, “分離權” 否定
  - “聯邦制” 標榜, “聯邦制” 不實施
  - “自決權” 承認, “自決權” 保留等

\* 第 1 段階 少数民族政策 變更表

時 代	区 分	内 容
(1) “中華 聯邦 共 和國” 時代 (1922~1936)	第 2 次 全國代表 大會 ( 1922. 7 )	○ 民族自治區의 聯邦制度 提議 ○ “中華聯邦共和國” 標榜
	中國共產黨 第 6 次 大會 ( 1928. 7 )	○ 民族自決權 承認 ( 第 1 次 10 代 政綱 第 3 條 )
	“中國 소비에트 區 域會議 ( 1930. 5 )	○ 完全分立權과 自由聯合權 認定 ( 第 2 次 10 大政綱 )
	“소비에트 第 1 次 全國代表大會”( 1931. 11 )	○ 完全自決權 承認 ( 第 3 次 10 大政綱 )
	第 2 次 “全國 소비에트 代表大會 ( 1934. 1 )	○ 民族自決權 承認 ○ 分離, 獨立權 認定
	毛沢東 ( 1934. 1. 22 ) “中華 소비에트 執行委 員會主席.” 身分으로	○ 分離權 및 完全自決權 承認 ( 1931 年 憲法 引用 )

時 代	区 分	内 容
	延安辺区 政權 樹立 ( 1963 ) 以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自治權에 대한 새로운 解釈              - “ 中国人民革命이 勝利할              때 ; 外蒙古 人民共和國은              그 支援에 의해 自動的              으로 中華聯邦의 一部가              될 것이며 回民과 藏              民이 建立할 自治共和國              은 中華聯邦에 附屬한다 ”              ( 毛沢東 )</li> <li>○ 分離權問題에 대하여는 한마              디 言及도 없음.</li> </ul>
(2) 自決, 自 治區 時代 ( 1936 ~ 194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分離權 ” 또는 “ 獨立權 ”              否定.</li> <li>○ “ 統一國家內 ” 의 民族自治單              位 建立을 提議.</li> <li>○ “ 自決 ” 과 “ 自治政府 ” 등의              單語保留              ( 正式文件中에서 )</li> <li>○ “ 分離權問題 ” 는 다시 言及              하지 않음.</li> </ul>

## (2) 第 2 段階 : 中共政權樹立 以後

- 第 1 段階의 民族政策이 自由分化를 強調한데 있다면 第 2 段階의 民族政策은 統一聯合을 鞏固히 하는데 있음.
- 民族의 分離權이 否定되고 統一的인 多民族國家의 構想이 確立됨.
- 文化革命中에는 所謂 " 4人邦 " 急進派들에 의해 少數民族에 대한 讓步와 優待가 各民族 反動派들에 대한 鬪抗이라 批判되기도 하였음.
- 그러나 4人邦勢力의 沒落과 더불어 다시 還元.

## 나. 少數民族政策의 內容

### (1) 民族平等政策

#### 가) 關係規程

- 共同綱領 第 50 條 및 憲法 第 4 條
  - 中華人民共和國 境內의 모든 民族의 平等
  - 民族差別待遇와 壓迫의 禁止

#### (내) 政治的 平等權

- 共同綱領 第 50 條 및 憲法 第 4 條의 平等權의 意味는 모든 少數民族은 漢族과 同等한 政治的 平等權을 가진다는 뜻임.
- 實際로 少數民族의 代表들도 黨과 國家의 指導的 部署에서 일하고 있음.
  - 第 3 期 人民代表大會의 少數民族代表는 373 名으로 全體의 12%
  - 共産黨의 最高委 指導層에서의 少數民族의 地位는 中央委員會 委員 (第 10 期 全國大會, 1973 年 8 月) 195 名中 10 名, 이中에 우리 僑胞 崔海電 이도 들어 있음.
  - 1978 年 10 月 現在 內蒙古의 烏爾夫, 新疆 위글의 賽福鼎, 西藏의 阿布 阿旺 晉美 등 少數民族指導者들이 黨中央委員, 中央政治局委員 및 候補委員, 그리고 全國人民 代表者大會 常務委 副委員長과 國務院의 要職에 加용되어 있음.

#### (다) 差別待遇 禁止

- 過去 漢族은 邊방의 異民族들을 야만인으로 取扱 少數民族의 名稱을 짐승으로 象形化 함으로써 事實上 犬 取扱을 함.

○ 少数民族의 漢字名稱의 變化는 漢族의 少数民族觀의 變遷을 말해주는 것임.

— 壯族에 關해 宋代以前에는 “撞”이던 것이 明, 清代에는 개체가 되어 “撞”字가 “撞”字로 바뀐채 그대로 답습되다가 1949年以後 人間으로 復權시킨다는 뜻에서 “僮”字로 代置

— 1951年 5月 16日 周恩來는 “少数民族을 差別하거나 모욕하는 性質의 이름, 地名, 비석, 간판등을 處理하는데 對한 中央人民政府 政務院의 指示”를 下達

○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少数民族에 對해 오히려 양보하고 우대하는 政策을 取하고 있음.

- 少数民族에 對한 教育의 特惠
- 少数民族地區에 對한 莫大한 支援과 補助金
- 아파트 추첨 우선권등

## (2) 民族團結 強化政策

### (가) 關係規程

○ 共同綱領 第50條 및 憲法 第4條

- 大民族主義와 狹隘한 民族主義 反對
- 各 民族의 團結을 分裂시키는 行動의 禁止.

- 10大關係論：大漢族主義와 地方民族主義 反對

(나) 大漢族主義와 地方民族主義 反對

- 1957年 中共 中央委員會 第3次 擴大會議에서 鄧小平은 “整風運動에 관한 報告”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음.

“少数民族사이 에 있어서의 社会主義教育과 反右派鬭爭은 漢民族地區와 마찬가지로 內容의 것以外에 民族主義的 傾向에 反對하는 것에 重點을 두지 않으면 안된다 (中略)

지금까지 우리들은 漢民族幹部들의 大漢族主義的 傾向에 反對하는 것을 強調해 왔다. 이것은 必要한 것이며 앞으로도 繼續해서 反對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現在 少数民族幹部들의 地方民族主義的 傾向에 反對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必要한 것이다!”

- 鄧小平의 演說을 契機로 少数民族地區에서는 地方民族主義 反對運動이 始作됨.

- 新疆 위글自治區 主席 “賽福鼎이 1957年末” 地方民族主義를 단호하게 反對하고 社会主義의 偉大한 勝利를 위하여 奮闘하자” 는 報告를 행한 다음해 1958年 6月에는 自治區 文化庁長官을 비롯한 要人の 숙청이 發表됨.



- 內蒙古에서는 1958年 2月 自治区 党大会에서 烏蘭夫가 "祖國의 統一, 民族의 團結, 党的 指導는 各民族의 發展, 進歩, 繁榮의 保證"이라는 報告를 行하고 分離主義的 傾向을 取하는 內蒙古地方 民族主義에 警惕를 加하고 蒙古人民共和國과의 文化的關係를 緊密化하도록 蒙古文字의 러시아文字化運動을 禁止함.

o 1978年 10月 16日 中共國家民族事務委員會主任 梁靜仁의 發言內容

- 民族團結 強化政策은 民族關係를 害치고 民族團結을 破壞하는 行爲를 反對하는 것이라고 定義하고 林彪와 4인방의 大漢族主義를 非難.
- 그들의 선동과 影響으로 大漢族主義와 地方民族主義가 자라났기 때문에 幹部와 群衆들에게 반드시 党的 民族政策을 再教育하여야 함.

### (3) 民族区域 自治政策

#### (가) 重 要 性

- 中共은 "民族区域自治"를 맑스·레닌主義를 運用하여 中国問題를 解決하는 基本政策이라고 主張하고 있으며 1949年 中共政權 樹立以來로 中国共産党和 中央人民 政府는 "民族区域自治"의 實施에 積極的인 努力을 경주하고 있음.

#### (나) 關係 規程

- 共同綱領 第51條 및 憲法 第4條
  - 民族의 区域自治 實施
  - 中央에 代表 派遣

#### (다) 自治區 建立의 3原則

1952年 2月 22日 政務院 第125次 政務會議에서 通過된 "中華人民共和國 民族區域 自治實施 綱要"

- 하나의 少數民族 취거지구를 基礎로 하여 建立하는 自治區
- 하나의 큰 少數民族 취거지구를 基礎로 하여 몇개의 人口가 적은 少數民族地區를 포괄하여 建立하는 自治區.

- 두개 또는 여러少数民族 취거구를 基礎로 하여 建立한 自治区

(라)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

- 民族自治地方은 自治区, 自治州, 自治県의 3가지로 区分

(마) 自治機關 組織의 基本原則

- 모든 權力은 國民에게 있다.
- 各 民族은 모두가 平等하다.
- 民族集中制의 原則
- 地方國家機關은 中央의 統一集中領導에 복종하며 中國共產黨의 領導를 받아들인다.

(바) 自治機關의 權限 (憲法 第2章 第4節)

- 法律에 規定된 權限에 따라 그 地方의 財政을 管理
- 國家의 軍事制度에 따라 그 地方의 公安部隊을 組織
- 当地民族의 政治, 經濟, 文化的 特徵에 따라 自治條例와 單行條例를 制定.

단, 이들 條例는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의 比準을 받아야 함.

## (사) 自治機關의 民族化

- 民族化란 民族의 幹部에 의해, 本 民族의 言語와 文字를 使用, 本民族의 經濟와 文化上的 特点 및 本民族의 生活習慣에 따라 問題를 處理하는 것을 말함.  
(憲法 第 39 條: 民族自治地方別로 當지민족이 通用하고 있는 하나 또는 몇가지 種類의 言語文字를 使用)
- 그러나 自治機關의 民族化는 中國共産黨의 強化 및 上級人民政府의 自治地方에 대한 領導와 分離할 수 없으며 漢族 또는 기타 民族幹部의 協調 및 각지의 黨組織의 事業과 分離할 수 없음.
- 中央權力은 憲法規定의 範圍內에서 民族의 獨自性 및 多樣性을 許容하면서 體制가 지향하는 目標와 政策에 少數民族을 積極적으로 그리고 調和를 이루면서 統合하려는 意圖임.

## 나. 少數民族 幹部政策

- 毛沢東은 多數의 少數民族幹部 없이는 民族問題를 解決할 수 없으며 民族反動派를 完全고립시킬 수 없다고 強調

○ “少数民族幹部培養方案”의 內容

( 1950年 11月 24日 政務院 第60次 政務會議에서 비준)

- 新 民主主義 教育方針에 따라 各 少数民族幹部를 養成하되 現在는 政治幹部 養成을 위주로 하고 必要한 技術幹部는 보충.
- 上記 目的을 위해 北京에는 中央民族學院을 設立하고 西北, 西南, 中南에는 各各 中央民族學院 分院을 設置
- 大學 및 專門學校의 少数民族 學生들에게 對한 無償教育 實施.

○ 文化革命期間中에는 黨과 國家의 各級 領導機構에서 老中, 青의 3結合을 強調함.

○ 少数民族幹部 養成現況

- 1975年 現在 新疆 위글 自治區 : 8萬4千餘名, 이中 女性幹部가 19%를 차지 (政權樹立 初期에 比해 20倍 增加)
- 1975年 現在 內蒙古 自治區 : 2萬餘名
- 1978年 8月 現在 西藏自治區 : 4萬餘名 (幹部總數의 64%)

○ 華國鋒은 少数民族가운데서 黨事業과 行政事業幹部들을 選拔 養成할 뿐 아니라 科學技術面의 專門技術幹部들도 養成할 것을 自治區 幹部들에게 提示함.

(5) 言語文字 및 風俗 慣習에 대한 尊重政策

(가) 關係規程

○ 共同綱領 第 53 條 및 憲法 第 4 條

- 各 民族의 固有言語文字 使用
- 固有의 風俗과 慣習의 維持

(나) 語文政策

○ 私的인 使用뿐만 아니라 民族自治地方에서는 共用語로 使用.

- 言語가 通하지 않는 民族住民은 法庭에서의 陳述, 國家機關에 提訴하는 請願, 各級 人民代表大會의 報告등에 通역, 번역을 要求할 權利를 保有.

○ 54 個 少数民族 가운데 独自の 民族文字를 發展시킨 것은 17 個民族임.

- 固有民族 語文을 갖고있는 少数民族에게는 行政的 自治 및 모든 社會文化 活動에서의 使用은 勿論 行政公式文書에서도 民族語文을 公式用語로 使用케 함.
- 独自の 文字가 없는 少数民族을 위해서는 새로 民族文字를 考案 制定했거나 不完全한 것은 條正補完

해 주었음(苗族, 이족, 위글족등 21個 民族对象)

- 이리하여 그 自治区域内에서의 新聞, 出版, 번역, 放送 教育 등의 文化活動을 民族語文으로 使用.

- 人口가 너무 적거나 이미 漢化되어버린 少数民族은 漢語文을 使用.

○ 단, 文化革命中에는 많은 少数民族에게 独自の 言語를 갖게한 結果로 過去의 歷史에서 되풀이되었던 "地域民族主義"가 再生할 것을 念慮의에 대한 비판이 강했음.

○ 歷史的으로 보면 少数民族의 民族言語는 過渡期的인 性格을 가짐.

- 漢族自身이 漢字를 줄이고 簡字化하는 段階에서 끝내는 漢字를 없애고 라틴化하려는 基本政策을 追求하고 있기 때문임.

#### 대 風俗 慣習의 尊重

○ 少数民族의 風俗習慣에 대한 党的 態度

- 少数民族人民의 進歩와 發展을 積極적으로 돕는 風俗 慣習은 向上

- 少数民族人民의 進歩와 發展에 積極적인 作用은 하지 않으나, 옳가 되지않는 風俗慣習은 放置.

- 少数民族 人民의 進歩와 發展에 해로운 風俗慣習은 改革.

○ 風俗慣習 尊重의 实例

- 新疆 自治区 수도 "우루무치"는 中国名이 아닌 "위글" 名임.

- 内蒙古自治区의 行政单位인 盟과 旗도 蒙古의 慣習에 따른 것임.

- 특히 國家行事 때 民族固有의 衣裳을 걸친 少女들을 登場시켜 民族的 傳統性을 誇示하고 있음.

○ 文化革命中에는 소위 4인방 급진파들의 少数民族의 風俗·慣習에 대한 간섭과 改革의 強要로 많은 風俗·慣習이 廢止되었음.

- 雲南省 大里顯의 "三月街"

- 蒙古民族의 傳統的인 오락인 "나타무" 대회등

○ 4인방의 몰락과 더불어 少数民族의 傳統的인 風俗·慣習이 부활되고 있음.

- 특히 1978年 10月 16日 "梁靜仁"은 民族事業에 대한 報告에서 다음과 같이 發言함.

"앞으로는 少数民族이 風俗習慣을 保持하거나 改革할 自由를 받드시 尊重하여야 한다.



돼지고기를 먹지않는 民族에게 養豚을 권하거나 더우  
기 少数民族에게 火葬을 強要해서는 안된다”

#### (대) 宗教政策

○ 少数民族의 相当수가 종래에 라마교와 이슬람교를 믿어  
왔기 때문에 宗教政策은 少数民族政策의 重要한 포인트  
임.

#### ○ 理論과 實際

— 封建搾取制度를 남기고 있는 宗教를 언제까지 그대로  
둔다는 것은 社会主義와는 矛盾되나 급격하게 改革하면  
民心이 離反할 것을 염려.

— 이러한 事情때문에 党的 종교정책은 非常하게 慎重하  
여 1957年부터는 거의 改革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1958年以來의 大躍進政策과 함께 종교가 갖고있는  
봉건적 压迫 및 착취제도를 배제하는 鬪爭을 전개하  
였으나 結果的으로는 1959年 西藏事件과 같은 悲劇  
을 招來하였음.

— 이러한 反省으로 종교신앙의 自由가 다시 言及됨.

- 中共憲法에는 “公民은 종교를 믿을 자유와 믿지 아니하고 無神論을 宣傳할 자유를 가진다”(第3章第46條)고 規定되어 있으나 共產主義는 本質적으로 無神論이며 宗教信仰과는 矛盾됨.

○ 政策實施方法

- 一方으로는 宗教의 自由를 부르짖으면서
- 他方으로는 強力한 敎育을 통해 民衆을 宗教로부터 떼어놓는 方法을 採択.
- 이 境遇에도 급격하게 強制하는 方法은 가급적 回避하고 있음.

(6) 少数民族의 經濟·文化 發展 協調政策

(가) 關係規程

- 共同綱領 第 53 条 및 10 大關係論 : 少数民族의 經濟·政治·文化教育 建設事業을 協助

(나) 少数民族의 經濟·文化發展의 協助

- 華國鋒의 發言

“誠心誠意를 다해 少数民族의 經濟建設과 文化建設의 發展을 위해 積極 協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民族 事業方面의 重大한 任務이며 辺疆 建設을 強化하고 國防을 공고하게 하는 重大한 任務이다. 少数民族은 艱苦 奮鬪, 自力更生의 革命의 精神을 發揮하고 國家는 計劃的으로 財力, 物力, 人力의 各 方面으로 少数民族을 도우므로 少数民族地区의 農業, 牧畜業, 工業이 每年 發展하고, 經濟가 每年 繁榮하고, 人民生活이 每年 改善되지 않으면 안된다”

(다) 經濟政策

- 少数民族의 經濟社会生活

— 少数民族은 그 大部分이 非都市, 農村, 山間, 海岸地方에 集結해서 自治区, 洲, 縣을 形成하고 있기 때문에

그 經濟社会生活은 人民公社의 形態를 지님.

— 經濟活動은 그 住居地의 天然條件과 관련된 生産이

中心이 되고 있음. 예를 들면 山間族의 畜産, 林系,

## 鉉業 등과 僑胞들의 벼農事

### ○ 少数民族支援方法

- 少数民族地区에 建設投資額을 늘림
- 補助金を 줌
- 税金을 免除함
- 物資 輸送 增加
- 少数民族에게 必要한 商品 大量生産供給
- 經驗있는 醫師, 農民, 敎員等을 보냄

### ○ 支援規模

- 20余年동안 內蒙古 自治区에 投資한 金額과 補助金은 1975年現在 93億2千萬원(中共貨幣)
- 1960年以來 西藏에 支払한 補助金은 이 自治区 財政 支出의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음.

### ○ 支援結果

- 少数民族地区는 內地의 漢族보다 더욱 빠른 速度로 發展하고 있음.

## (라) 敎育政策

### ○ 敎育政策方向

- 少数民族은 각기의 自治地域內에서 小学, 中学(初級, 高級을 合친)의 民族敎育을 實施
- 統一國家의 理念에 따라 漢字漢語를 使用하는 一般學校에의 入學은 本人의 自由이고 아무런 制限이 없는.

실제로는 窮極的인 同和政策을 促進하기 위해 이쪽이 장려되고 있음.

— 1975年 現在 西藏自治區의 境遇, 民族大學 1個, 中學校 7個, 小學校 2千5百餘個

○ 中央民族學園의 創設과 入學資格

— 1951년에 創設된 이 綜合的 民族大學은 主要自治區의 7個都市에 分校를 두고 있음.

— 이 學院은 54個의 모든 少數民族에 開放되어 있으며 그 設備나 수준이 좋고 人口가 적어 독자적 言語나 독자적 大學을 갖지 못한 불우한 少數民族出身을 優先的으로 收容

— 民族學園의 創設(51年)부터 1973년까지 사이에 排出된 高級指導者의 數는 9千4百名

○ 中央民族學院의 任務

— 高級과 中級の 幹部養成

— 中國 少數民族問題, 各 少數民族의 言語文字, 歷史文化, 社會經濟 研究과 各 民族의 우수한 歷史文化 發揚 및 紹介

— 少數民族方面에 關한 편집과 번역事業의 組織化 및 指導

(마) 人口政策

● 中共은 人口억제政策을 強行하고 있으나 人口가 적은

少数民族에게는 오히려 人口장려책을 쓰고 있음.

○ 또한 少数民族에 对한 医療惠沢提供으로 漢民族에 비해 人口增加率이 높음.

— 1975年 現在 蒙古族은 中共 政府樹立前에 비해 人口가 2.2배, 위글族은 42% 增加

## 다. 少数民族의 現況

### (1) 少数民族形成의 歷史와 現況

#### (가) 紀元

- 대체로 3個群으로 分類
  - 北 및 北京쪽으로부터 온 蒙古系群
  - 西南 및 南쪽에서 들어온 말레시아계群
  - 주로 西쪽에서 온 코카서스계群

#### (나) 少数民族形成

- 中国의 긴 歷史에서 보듯이 中国大陸에 들어와 살고 있는 民族들은 서로 피를 합치고 漢족에 흡수되기도 하고 細分化되기도 하면서 民族을 形成
  - 따라서 血統的 根지에서 보다는 각기 現在의 言語圈 및 經濟 文化圈에 依해 民族을 区分하는 것이 바람직

#### (다) 少数民族의 構成

- 中国의 少数民族은 54個
  - “새 中国이 걸어온 25年” (1975年 北京 外文出版社) 과 中共에서 發刊된 漢字辭典으로써 政府가 公認한 가장 信憑性있는 “新華字典” (1975年 北京 商務印書館)에 依하면 公認된 少数民族은 54個임.

(리) 少数民族의 人口

- 少数民族人口는 5千4百万 - 5千7百万으로 推算
  - "Far Eastern Economic Review" 誌 1978年度版 아시아年鑑에 依하면 1978年 現在 中国의 総人口는 9億 - 9億5千万으로 推算
  - "10大關係論"에 依하면 少数民族의 人口는 全体人口의 6%
  - 上記 推算과 根據에 따라 少数民族人口를 算出하면 5千4百万에서 5千7百万이 됨.

(마) 少数民族의 分布

- 総人口의 6%에 不過한 少数民族이 居住하는 地域은 内蒙고, 신강, 서장, 감숙, 청해, 운남, 사천, 귀주, 광서 등 中国의 全域에 걸쳐 있으며 그것이 接하는 面積은 全中国의 50% - 60%에 이르고 있음.
- 이들 地域은 不毛의 사막과 인적미담의 고산지역이 많으나 内蒙고의 철, 석탄, 신강의 石油等 中国의 社会主义 建設에 必要한 資源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地域임.



少数民族構成 및 主要分布 地区表 ( 1967 年現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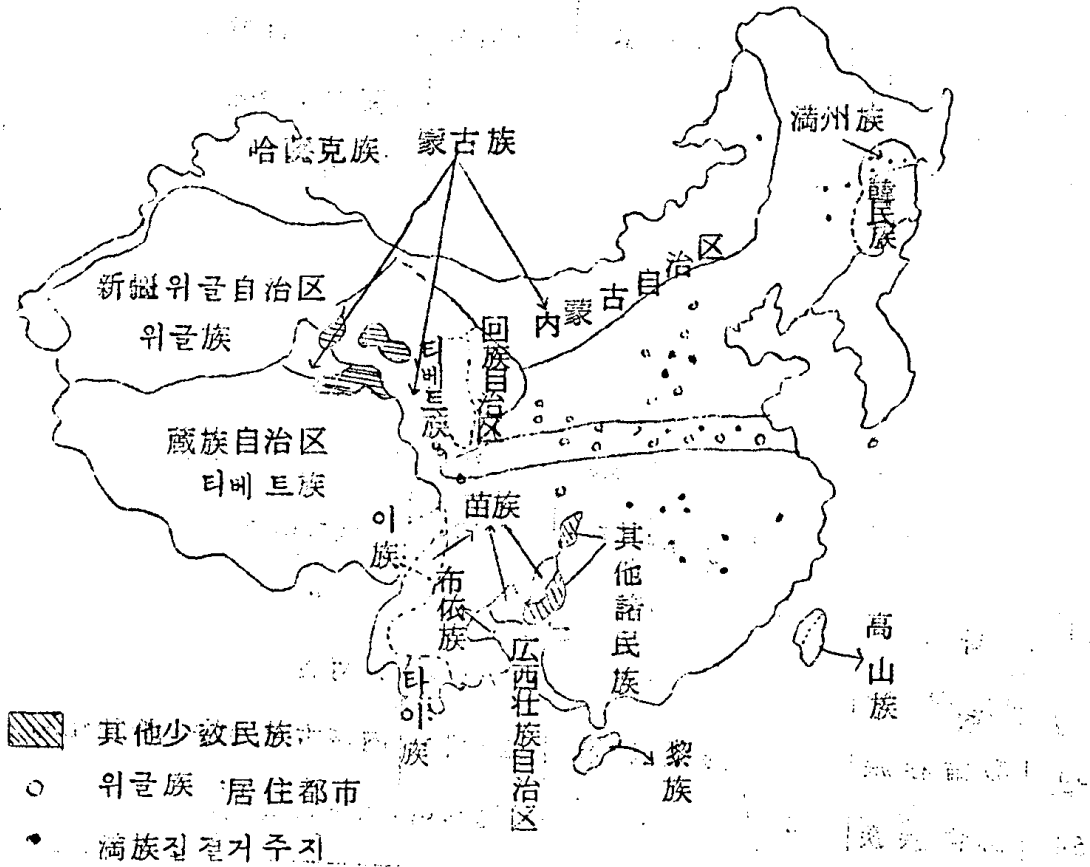
人口順	民族名	人種	系 統	人 口	主 要 分 布 地 区
1	壯 族	蒙古	타 이 系	778 여만	廣西壮族自治区, 雲南省, 廣東省
2	回 族	"	突厥系	393 여만	寧夏回族自治区, 甘肅省
3	위글族	"	"	390 여만	新疆 위글自治区
4	이 族	"	藏緬系	326 여만	雲南省, 四川省, 貴州省
5	藏(티벳)族	"	"	277 여만	西藏自治區, 青海省, 四川省
6	苗 族	"	苗 系	268 여만	貴州省, 湖南省, 雲南省
7	滿 族	"	通古斯系	243 여만	遼寧省, 黑龍江省, 吉林省
8	蒙 古 族	"	蒙 古 系	164 여만	內蒙古自治區, 吉林省, 遼寧省
9	布 衣 族	"	타 이 系	131 여만	貴州省
10	韓 民 族	"	通古斯系	125 여만	吉林省, 黑龍江省, 遼寧省
11	동 族	"	타 이 系	82 여만	貴州省, 湖南省, 廣西壮族自治区
12	요 族	"	苗 系	74 여만	廣西壮族自治区, 湖南省
13	白 族	"	藏緬系	68 여만	雲南省
14	土 家 族	"	"	60 여만	湖南省, 湖北省
15	哈 尼 族	"	"	54 여만	雲南省
16	哈薩克族	"	突厥系	53 여만	新疆 위글自治区, 青海省 등
17	타 이 族	"	타 이 系	50 여만	雲南省
18	黎 族	"	"	39 여만	廣東省 (海南島)
19	울 寺 族	"	藏緬系	31 여만	雲南省
20	와 族	"	南亞系	28 여만	雲南省

人口順	民族名	人種	系 統	人 口	主 要 分 布 地 区
21	사 族	蒙古	苗  요 系	22여만	福建省, 浙江省, 江西省 广东省
22	高山族	"	南 島 系	20여만	台湾省
23	拉 亠 族	"	藏 緬 系	18여만	雲南省
24	水 族	"	타 이 系	16여만	貴州省
25	東 鄉 族	"	突 厥 系	15여만	甘肅省
26	納 西 族	"	藏 緬 系	15여만	雲南省
27	景 頗 族	"	"	10여만	雲南省
28	가 爾 克 孜 族	"	突 厥 系	6.8여만	新疆维吾尔自治区
29	土 族	"	타 이 系	6.3여만	青海省, 甘肅省
30	達 斡 爾 族	"	蒙 古 系	5여만	內蒙古自治區, 黑龍江省
31	마 노 族	"	타 이 系	4.4여만	廣西壯族自治區
32	창 族	"	藏 緬 系	4.2여만	四川省
33	布 朗 族	"	南 亞 系	4.1여만	雲南省
34	撒 拉 族	"	突 厥 系	3.1여만	青海省, 甘肅省
35	毛 難 族	"	타 이 系	2.4여만	廣西壯族自治區
36	홀 노 族	"	苗  요 系	2.3여만	貴州省
37	錫 伯 族	"	通 古 斯 系	2.1여만	新疆 维吾尔自治区, 遼寧省
38	搭 吉 克 族	코카사	이 란 系	1.5여만	新疆 维吾尔自治区
39	普 米 族	蒙 古	藏 緬 系	1.5여만	雲南省
40	怒 族	"	"	1.3여만	"
41	烏 孜 別 克 族	"	突 厥 系	1.1여만	新疆维吾尔自治区

人口順	民族名	人種	系 統	人 口	主 要 分 布 地 区
42	阿 昌 族	蒙 古	藏 緬 系	1만여	雲南省
43	俄 羅 斯 族	코카사	슬라브系	97백여	新疆위글自治区
44	鄂 温 克 族	蒙 古	通 古 斯 系	72백여	内蒙古自治区
45	崩 龍 族	"	南 亞 系	63백여	雲南省
46	保 安 族	"	突 厥 系	55백여	甘 肅 省
47	裕 固 族	"	"	46백여	"
48	京 族	"	타 이 系	44백여	広 東 省
49	塔 塔 爾 族	"	突 厥 系	43백여	新疆위글自治区
50	門 巴 族	"	藏 緬 系	38백여	西 藏 自 治 区
51	라 巴 族	"	"	38백여	"
52	独 龍 族	"	"	27백여	雲南省
53	鄂 倫 春 族	"	通 古 斯 系	24백여	内蒙古自治区, 黑龍江省
54	赫 哲 族 族	"	"	6백여	黑龍江省

※ 위 少数民族構成 및 主要分布地区表는 "1965 人民手冊"을  
 根拠로 "新中国年鑑 (1977 年度版)" 및 "아시아 研究 (1970  
 年 第13卷 第1号) 等에 依拠 作成

※ 少数民族分布图



(바) 行政体制

- 自治区, 自治州, 自治县的 3级制 採択
- 自治区는 5个, 自治州는 29个, 自治县은 66个, 그리고 3개의 自治旗가 있음.

少数民族 自治区 一览表

( 1973年 現在 )

省，自治区		民族自治地方名称	合 計	
自 治 区		内蒙古自治区 宁夏回族自治区 新疆维吾尔自治区 广西壮族自治区 西藏自治区	5	5
自治州	吉 林 省	延边朝鲜族自治州	1	
	甘 肃 省	临夏回族自治州 甘南藏族自治州	2	
	青 海 省	海北藏族自治州 黄南藏族自治州 海南藏族自治州 果洛藏族自治州 玉树藏族自治州 海西蒙古族藏族哈萨克族自治州	6	29

省，自治区	民族自治地方名称	合 計	
新疆维吾尔自治区	昌吉回族自治州 巴音郭楞蒙古自治州 克孜勒蘇柯尔克孜自治州 博爾塔拉蒙古自治州 伊犁哈薩克自治州	5	
湖南省	湘西土家族苗族自治州	1	
广东省	海南黎族苗族自治州	1	
四川省	阿坝藏族自治州 凉山彝族自治州 甘孜藏族自治州	3	
贵州省	黔东南苗族侗族自治州 黔南布依族苗族自治州	2	
云南省	西双版纳傣族自治州 文山壮族苗族自治州 红河哈尼族彝族自治州 德宏傣族景颇族自治州	8	

省，自治区		民族自治地方名称	合 計	
		怒江 <small>을</small> 族自治州 迪慶 <small>적</small> 族自治州 大理白族自治州 楚雄 <small>이</small> 族自治州		
自治 県	河北省	大廠回族自治県 孟村回族自治県	2	66
	遼寧省	阜新蒙古族自治県 柞 <small>적</small> 沁左翼蒙古族自治県	2	
	吉林省	長白朝鮮族自治県 前郭爾羅斯蒙古族自治県	2	
	黑龍江省	杜爾伯特蒙古族自治県	1	
	甘肅省	張家川回族自治県 天祝藏族自治県 肅南裕固族自治県 肅北蒙古族自治県	6	

省，自治区	民族自治地方名称	合 計	
	阿克塞哈萨克族自治县 東鄉族自治县		
青 海 省	互助土族自治县 化隆回族自治县 循化撒拉族自治县 河南蒙古族自治县 門源回族自治县	5	
新 疆 维 吾 尔 自 治 区	巴里坤哈萨克自治县 塔什庫爾干塔吉克自治县 木垒哈萨克自治县 焉耆回族自治县 察布查爾錫伯自治县 和布克賽爾蒙古族自治县	6	
湖 南 省	江華苗族自治县 城步苗族自治县 通道侗族自治县 新晃侗族自治县	4	



省，自治区	民族自治地方名称	合 計	
广东省	連南瑶族自治县 連山壮族瑶族自治县 乳源瑶族自治县	3	
广西壮族自治区	都安瑶族自治县 融水苗族自治县 三江侗族自治县 龍勝各族自治县 金秀瑶族自治县 東興各族自治县 隆林各族自治县 巴馬瑶族自治县	8	
四川省	木里藏族自治县 塩源回族自治县 茂汶羌族自治县	3	
贵州省	松桃苗族自治县 貞豐布依族苗族自治县 望謨布依族苗族自治县	9	

省，自治区	民族自治地方名称	合 計	
	冊亨布依族自治县 安龍布依苗族自治县 鎮寧布依族苗族自治县 紫雲苗族布依族自治县 威寧彝族回族苗族自治县 三都水族自治县		
雲南省	山彝族自治县 路南彝族自治县 滄源佤族自治县 耿馬傣族佤族自治县 麗江納西族自治县 寧定族自治县 江城哈尼族彝族自治县 瀾滄拉祜族自治县 孟連傣族拉祜族佤族自治县 西盟佤族自治县 河口瑶族自治县 屏边苗族自治县 貢山独龍怒族自治县	15	

省，自治区		民族自治地方名称	合 計	
		위산이族回族自治県 남간이族自治県		
自治旗	黑龍江省	鄂倫春族自治旗 莫力達瓦達斡爾族自治旗 鄂温克族自治旗	3	3
總 計：自治区：5， 自治州：29， 自治県：66， 自治旗：3				

出処：『匪情年報』（1976年版）

라. 少数民族의 問題点과 政策의 向方

(1) 少数民族의 問題点

- 中共의 諸般 少数民族融和政策에도 不拘하고 그동안 다음과 같은 主要 少数民族事件이 發生하였음.

中共 少数民族事件 事列表

時 期	事 件
1931-1934 年	新疆 위글에서의 “馬仲英” 反乱
1955-1957 年	甘肅省 과 青海省 일대의 “回” 民의 反共運動
1957 年	新疆 위글族이 分離權을 가진 可盟共和國을 主張
1959 年	西藏 (티베트) 의 全面暴動事件
1962 年	新疆 위글 및 카자크族 등의 大規模 蘇聯脱出事件
1971 年	3,000 名의 中国少数民族 蘇聯脱出事件
1976 年	天安門事件以後 広西壯族 自治区 및 新疆 위글 自治区에서도 이와 類似事件 發生

- 上記와 같은 少数民族事件發生은 오랜 歷史와 文化的 背景을 달리하여은 漢族과 少数民族과의 對立에 起因하여 54 개의 少数民族가운데는 아직도 強烈한 民族意識을 갖고 分

- 離를 希望하는 種族들이 存在하기 때문임.
- 特히 辺境에 있는 少数民族들은 隣接國家에 편입되어 있는 같은 種族들과 連繫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가가 造成되면 分離, 離脫할 素地가 있음.
    - 蒙古族들은 中共, 蘇聯, 外蒙古에 散在
    - 카자크, 위글族들은 中共, 蘇聯에 散在
    - 서장族들은 네팔, 부탄, 北印度에 散在
  - 그 가운데서도 위글族, 카자크族, 蒙古族의 中·蘇 兩國 散在現象은 中·蘇 紛爭促進의 한 要因으로 될 危險性이 있으며 비록 現時點에서 이들 3族의 獨立可能性은 희박하다 하더라도 만일 中·蘇 戰爭이 發生하면 獨立爭取의 可能性이 있음.
    - 蘇聯은 石油等 地下資源이 豊富한 中共領內의 新疆( 위글族 居住)에 對한 直接的 影響力 行使에 腐心하여 왔음.
  - 이러한 事情때문에 中共의 少数民族政策遂行에는 各 少数民族과 聯關性이 있는 隣接國家에 對한 政治的 考慮를 하지 않을 수 없는 立場에 있음.
    - 1959年, 中共의 西藏( 티베트 )問題 處理의 失敗가 印度의 反中國感情을 誘發하였음.

## (2) 少数民族政策의 向方

中共의 少数民族政策遂行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變數)을 類型化시켜보면 다음과 같음.

### ○ 同化沮害要因(獨立變數)

- 民族居住地域이 넓을수록 同化能力이 적다.
- 民族居住地域의 接近이 어려울수록 同化的 可能性이 적다.
- 民族의 武力征服이 어려울수록 同化傾向이 적다.

### ○ 同化促進要因(間接變數)

- 中共政府의 少数民族政策目標(政治的統一, 經濟的支配, 軍事的安全)의 持續은 同化를 促進할 것이다.
- 中共政府의 少数民族政策(民族平等, 区域自治, 言語文化自由, 民族團結)의 成功은 同化를 促進할 것이다.

### ○ 中共의 少数民族處理方法(非獨立變數)

- 各 民族의 同化能力과 政府目標, 政策에 따라 各種의 対応方法을 決定한다. 예를들면 文化의 穩全性을 維持할 것인가, 어떤 種類의 經濟的利益을 줄 것인가, 政治的 地위를 어떻게 保障할 것인가등을 決定한다.

同化沮害要因 ( 独立變數 )	同化促進要因 ( 間接變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面積의 広闊性</li> <li>○ 地理的接近의 困難性</li> <li>○ 情報의 困難性</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政府目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政治的統一, 經濟的支配, 軍事的 安全</li> </ul> </li> <li>○ 政府政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民族平等, 区域自治, 言語自由, 民 族團結等</li> </ul> </li> </ul>

處 理 方 法  
( 非 独 立 變 數 )

- 文化의 穩全性
- 經濟的 利益
- 政治的 地位

○ 따라서 앞으로 少數民族政策의 向方은 上記 3個要因 ( 變數 )의 函數關係에 의해 左右될 것임.

마. 在中共僑胞의 實態

(1) 僑胞人口 및 分布

(가) 僑胞人口

○ 1978年 現在 中共에 居住하고 있는 우리僑胞는 約 200 万으로 推算

— 54個 少數民族가운데서 人口의 크기로 10번째

僑胞人口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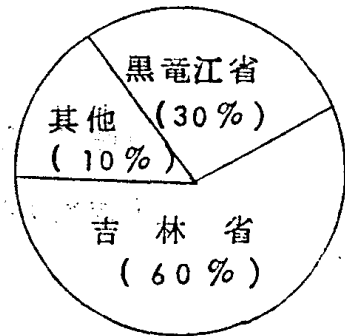
1940	1953	1957	1961	1974	1978
1,189,338	1,120,405	약 125 만	1,255,551	약 190 만	약 200 만

※ “1965 人民手冊”, “1974年版 簡明中國地理”, “共匪政治問題論集 (1975)”, “中共의 어제와 오늘 (1977)”, “金一平教授 中共旅行記 (1978.)” 등에 의거 作成

僑胞 分布 現況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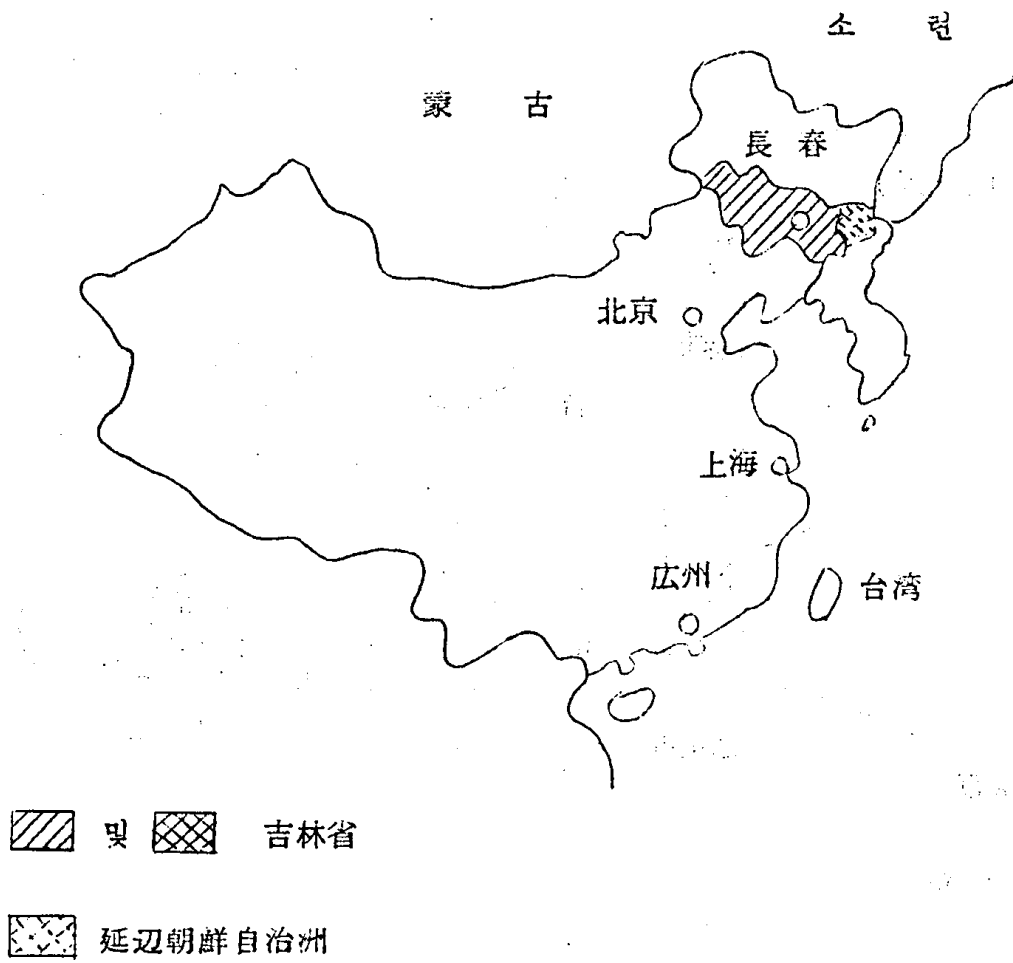
總人口: 約 200 万
吉林省: 約 120 万
黑龍江省: 約 60 万
遼寧省 및 기타地域: 約 20 万

僑胞 分布 現況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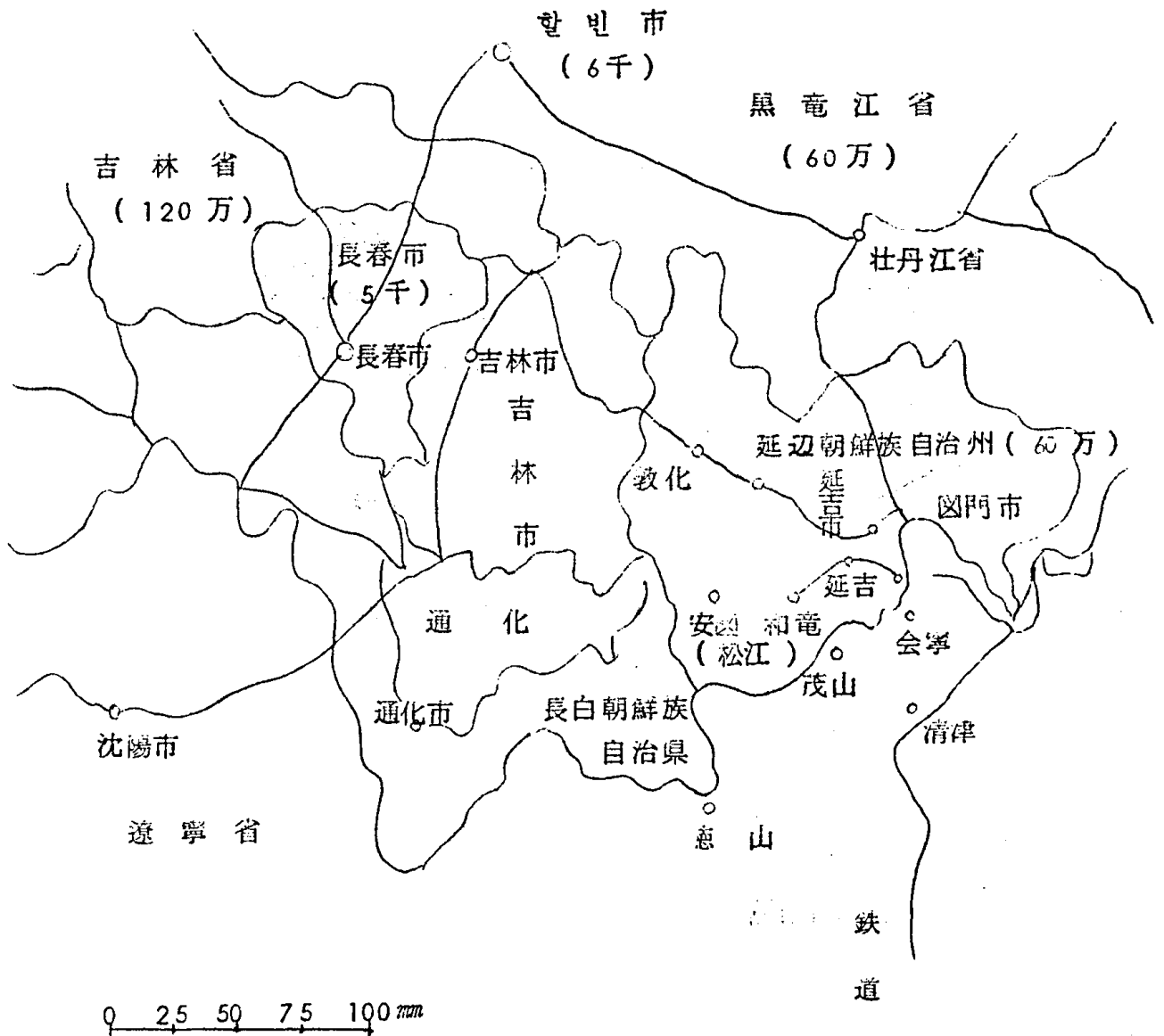




僑胞 分布圖 (1)



僑胞 分布圖 (2)



## (2) 僑胞 定着의 歷史와 背景

### (가) 僑胞의 間島移住

○ 李朝末葉 農村의 崩壞過程과 함께 移住始作

— 이 時期에 이미 間島는 僑胞들의 居住地가 되어 감.

○ 韓日合邦後 間島 移住民은 急增

— 1910年, 10万

— 1930年, 60万

— 1940年, 1百30万9千53名(滿洲國 康德7年 第1回 國稅調查 報告)

○ 韓日合邦後 日帝의 積極的인 移民政策 實施

○ 1938年 7月에는 僑胞의 新規入住 禁止

— 抗日 유격대와 僑胞農民의 相互支援關係 斷切

— 日帝의 섬멸作戰의 일환으로 滿洲全域에 흩어져 살고 있는 僑胞들을 間島를 위시한 몇 개 縣에 集結

### (나) 僑胞의 成分

1) 日帝에 依해 朝國을 빼앗긴 當時의 봉건왕조의 支配階級

2) 日帝의 朝鮮農業經營政策으로 土地를 빼앗겼거나 浮浪民이 되어버린 零細農民

3) 日帝의 計劃的인 朝鮮農民 滿洲 移民政策으로 移住한 下層 大衆

在 滿 洲 僑 胞 數

( 1940.12.30 )

省 的 名 稱	戶 數	人 口
新 京 特 別 市	2,282	12,468
市 吉 林	22,970	122,521
竜 江 省	1,056	4,895
北 安 省	5,838	21,357
黑 河 省	240	1,075
三 江 省	4,353	23,546
東 安 省	4,601	27,312
牧 丹 江 省	8,802	43,654
浜 江 省	8,607	42,849
間 島 省	10,019	551,714
通 化 省	14,142	83,337
安 東 省	9,969	54,671
奉 天 省	24,357	130,485
錦 州 省	3,873	19,271
熱 河 省	270	969
興 安 西 省	203	971
興 安 南 省	1,693	8,395
興 安 東 省	329	1,304
興 安 北 省	84	430
関 東 州	912	4,826
合 計	221,718	1,189,338

出 處 : “ 滿 洲 開 拓 年 鑑 ” ( 1941 年 版 )

### (3) 吉林省의 延辺 朝鮮自治州

#### (가) 概況

- 1952年9月3日에 成立된 延辺 朝鮮自治州는 約 60万名の 漢民族(半數以上)을 中心으로 韓(漢)族, 滿族, 回族, 蒙古族等 多民族이 居住하고 있음.

#### (나) 政治

- 延辺 朝鮮自治州는 2市(延吉과 圖門), 6縣으로 構成되어 있고 그와같은 行政構造는 全体的으로 111個의 人民公社로 이루어져 있음.
  - 111個의 人民公社는 다시 1,073個의 生産大隊, 그것은 다시 5,200個의 生産隊로 사다리꼴形態의 構造를 이루고 있음.
  - 人民公社, 縣, 州는 僑胞, 漢族, 滿洲族, 蒙古族등이 다같이 어울려 사는 行政單位임.
- 僑胞들은 漢族과 그 밖의 民族들과 全적으로 平等한 立場에서 權利를 行使하고 있음.
  - 縣, 州의 行政機關에도 半數는 僑胞들이 차지
  - 公式用語도 中國語와 韓國語의 併用
- 党中央과 中央政府에도 僑胞代表가 自治州를 代表해서 나감
  - 自治州 成立當時의 “延辺 朝鮮族 自治區 人民政府主席”에도 僑胞인 延辺 大學長이던 朱海德(1911-)이 選

출됨. 그는 自治州가 들어있는 吉林省의 副省長(省長은 한족)으로써 1955年8月 第1期 全國人民代表大會時부터 第3期大會時까지 吉林省代表로 選出됨.

一 朱德海의 後任인 崔海竜(自治州委員會 書記)은 1969年 4月の 黨第9期大會에서 中央委員會 候補委員으로 選出되었으며 1973年8月の 第10期 全大會에서는 中央委員會 正委員으로 피선됨.

一 1978年2月26日, 中國 第5期 全國代表大會에 吉林省代表 73名이 參席했는데 이 中에 韓民族으로는 朴春子(여성, 吉林省 延邊朝鮮自治州委員, 第4期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와 함께 金明漢(1977年8月の 中國공산당 第11回 全國代表大會에서 中央委員會候補로 피선)이 選出되었음.

#### (다) 主要産業과 日常生活

##### ○ 農 業

一 僑胞들의 主産業은 農業인바 僑胞들의 높은 教育과 技術 開發로 中國 南部의 漢族의 농사보다 生産性이 높은 편이며 따라서 그 物質生活과 文化水準은 “ 넉넉한 集團農村”이라고 함. (1975年 延邊自治州를 訪問한 日本人 農業經濟專門家 菊池昌典의 報告)

##### ○ 日常生活

一 모두가 人民公社의 社員으로 均等하게 일을 分担

○ 主 食

- 하루 세번하는 食事의 主食은, 中國人은 쌀 반에 옥수수 또는 감자 其他 穀類를 섞는 것이 보통이지만, 僑胞들은 쌀이 100%임.

○ 衣 服

- 평소의 服裝은 勞動服 (人民服, 中山服)으로 불리는 服裝이고 外出服도 색깔이 틀릴 뿐이고 디자인은 같은 것임.
- 그러나 나이많은 우리 僑胞들은 언제나 흰색갈등의 民族 服裝을 입고 있음.

○ 住 居

- 木造家屋으로 鐵管, 土管, 시멘트 등을 使用한 온돌식임. 燃料는 나무와 石炭을 使用하고 있음.

(라) 教 育

○ 教育機關

( 1975年 現在 )

学 校 区 分	学 校 級
小 学 校	1,379 個
中 学 (初級, 高級을 합친 5年制)	210 個
大 学	3 個

○ 延辺(綜合)大学

区 分	内 容
目 的	主로 僑胞의 中(高)学教師 養成
機 能	○ 民族 教育 ○ 僑胞들 사이의 文化協力을 爲한 教育
特 殊 位 置	○ 僑胞들의 民族 教育을 実施하는 中心 ○ 中国 最高の 韓國語 研究学部

時 期	教 授	学 生 数	備 考
設 立 当 時 (1940. 4)	50 명	460 명	
1975	460 명	1,400 명	僑胞教授: 60% 学生: 50%

○ 延辺農業專科学院

(1975年 現在)

校 員	在 学 生	僑胞:漢族	남 : 여
130 명	460 명	6 : 4	7 : 3



- 特徴은 通信教育制度가 完備되어 .여기 登錄한 学生數는 1万名가 량
- 州內 各縣의 農業技術指導員 養成所가 敷設되어 5-6百 名의 候補者가 短期 訓練班에 不定期的으로 入所하고 있음.

○ 延辺 医学院

(1975年 現在)

教 授	職員, 技術者	学 生	附屬病院병상
70 名	250 名	600 名	500 台

- 1949年9월에 創立
- 27年 동안에 3千名을 넘는 醫師를 養成

● 其 他

- 大學入學試驗에 合格만 되면 入學金이나 授業料는 없고 장학금까지 支給
- 기숙사비는 내야 하지만 장학금으로 充當하기 때문에 無料인 셈
- 책값도 5원(中共貨幣)씩 나온다고 함.

(延辺 綜合 大學의 境遇)

(마) 文化藝術

○ 라디오, 新聞, 雜誌

- 自治州는 延吉에 라디오 放送局과 “延辺日報”라는 新聞

을 갖고 있음.

- 使用用語는 中國語와 韓國語、併用
- 聽取는 自由, 평양放送은 물론 서울放送도 듣고 있음.
- 純한글판 문예잡지 “아리랑”과 그 자매지인 “少年兒童報”가 있음.

#### ○ 藝 術

- “延辺藝術學校”를 비롯하여 “延辺歌舞團”, “延辺活劇團”, “延辺京劇團”의 세 專門民族藝術團이 있음.
- 特히 “延辺歌舞團”은 韓民族의 傳統的 唱, 춤, 민요……등을 소재로한 韓民族의 代表的 藝術團으로 자주 中共 各地의 巡廻公演에 나가고 있음.

#### ● 藝術活動에 있어서의 素材 選択

- 韓民族의 歷史 傳統 民俗 藝術 民畫……等에서 選択하거나 綜合한 形式이 아니면 中國의 素材
- 分斷된 祖國의 南北韓 어느쪽에서도 素材를 찾지 않고 있음.

#### (바) 풍속, 관습

- 僑胞女性들은 物件을 머리에 이고 보통 40~50kg까지 거뜨히 운반.
- 미혼 女性들간에는 “널뛰기”가 盛行
- “연 날리기”, 화투놀이도 즐기고 있음.
- 할머니들이 모여 막걸리를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며 손뼉을

치면서, 즐김.

- 結婚式때에는 韓國 固有飲食을 만들어 여러 사람이 먹고 마시고 노래함.
- 나이 많은 사람들은 긴 담뱃대를 使用하고 있음.
- 식사때 한그릇의 밥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먹지만 반찬과 국은 각자의 것을 따로 먹는데 이때 젓가락외에 금속제 숟가락을 使用
- 지게로 物件을 운반하기도 하는데, 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使用
- 밥상을 使用
- 旧正, 清明節, 寒食, 秋夕 등의 명절을 지내고 있음.

#### (4) 在中 僑胞의 祖國觀과 問題點

##### (가) 祖 國 觀

- 在中 僑胞들은 韓民族이라는데 대해 굉장히 높은 자부심을 갖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中共안의 많은 少數民族속에서의 긍지이지 北韓 또는 韓半島 全体에 대한 現實的, 心情的 경사는 아님
- 大部分의 僑胞들이 단순히 朝鮮으로만 알고 있고
- 설사 南北의 分斷을 알고 있더라도 南北한 어느쪽에 特別히 敵對하거나 好感은 갖지않고 있다고 함.

- 政治的 연대감은 없다하더라도 같은 言語, 핏줄이라는 文化, 血緣的 연대감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인다.
- 僑胞의 大部分이 子女들을 韓國人學校에 보내 우리말과 傳統을 배우게 하고 있음.
- 평양에서 무용단이나 運動競技팀이 오면 人山人海을 제쳐놓고 구경가고 있음.
- 한가지 注目되는 사실은 僑胞들의 1세대가 北韓地域出身보다는 北韓地域出身이 훨씬 많다는 사실임.

#### (나) 問題點

##### ○ 法的地位問題

- 中共은 1950年을 起點으로 그 以前에 居住한 모든 少數民族에게 中國國籍을 認定, 우리 僑胞들도 中國國籍을 取得.  
1950年 以後 僑胞에게 永住權과 같은 地住附與.
- 在日 거류민단이나 在日 朝鮮總聯의 境遇와는 다른 點은 中共은 북괴의 政治的, 行政的 影響力을 一切 許容하지 않고 있으며 또 僑胞들도 이를 바라지 않고 있음.

##### ○ 2世들의 同化現象

- 우리 말을 배우는데 대해 점차 懷疑
- 中國學校에 가고 싶어하는 傾向
- 명절때의 僑胞들 모임에 忌避하는 傾向
- 中國人들과의 結婚率 크게 增加

(다) 展 望

- 過去 200 年의 僑胞移民史와 現在의 實態에 비추어 보건데 中共內의 우리 僑胞들은 앞으로 中國少數民族의 으뜸가는 民族으로써 명성과 發展을 과시할 것으로 보이나 同和현상은 승대될 것임 .

4. 中·蘇의 少數民族政策比較

比較基準	蘇 聯	中 共	比 較 評 価
少數民族 理論面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맑스·엔겔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窮極的 民族 消滅論 主張</li> </ul> </li> <li>○ 레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民族自決主義 理論에 基礎 함.</li> <li>- 프로레타리아 世界國家觀에 立脚한 普偏的인 民族分離의 概念 導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毛沢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맑스·레닌主義의 原理를 受容 民族問題를 階級問題로 把握</li> <li>- 一般的 意味의 民族主義는  없고 階級鬪爭의 過程이 있을 뿐이라고 主張</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蘇聯은 마르크스 엔겔스의 民族自決의 概念을 導入하여 러시아革命 遂行의 原動力으로 使用</li> <li>○ 中共은 맑스·레닌의 理論 및 蘇聯의 經驗을 中國의 特殊性에 맞게 適用</li> </ul>

比較基準	蘇 聯	中 共	比 較 評 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탈린</li> <li>- 民族自決主義</li> <li>  理論에 基礎함.</li> <li>- 프롤레타리아</li> <li>  國 社會主義</li> <li>  理論에 立脚한</li> <li>  制限된 民族分</li> <li>  離의 概念導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民族消滅論 主</li> <li>  張, 民族鬭爭과</li> <li>  階級鬭爭을 同</li> <li>  一視.</li> </ul>	
背景面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革命遂行過程에</li> <li>  서 짜르政府의</li> <li>  崩壞를 가속화</li> <li>  시키고</li> <li>○ 짜르政府의 民</li> <li>  族差別政策을</li> <li>  규탄하면서</li> <li>○ 少數民族의 支</li> <li>  持를 통한 革</li> <li>  命勢力擴大를</li> <li>  爲해 民族自決</li> <li>  權 認定</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毛沢東은 政權</li> <li>  樹立前에 一時</li> <li>  “分離權” 및 “自</li> <li>  決權” 承認</li> <li>  ↓</li> <li>  革命에 少數民</li> <li>  族支持 획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中·蘇의 理論</li> <li>  導入動機 및</li> <li>  背景이 類似</li> <li>○ 兩國 모두 共</li> <li>  産化革命의 戰</li> <li>  略的 構想으로</li> <li>  써 少數民族에</li> <li>  대한 重要性</li> <li>  提起.</li> </ul>

比較基準	蘇 聯	中 共	比 較 評 價
目標面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同和政策</li> <li>- 政治, 經濟, 社會, 文化, 言語, 人種面에서 러시아인 슬라브化</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同和政策</li> <li>- 漢民族中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中蘇間에 共同現象</li> </ul>
現指導層 認識面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7年 憲法改正審議中 指導層內部에서 少數民族 強硬策 論議</li> <li>○ 強硬策이 表面化되지는 않지만 저변에는 過激思想이 存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華國鋒</li> <li>- "財力, 物力, 人力 등 各方面으로 少數民族을 積極 協助하자"</li> <li>● 鄧小平</li> <li>- 大漢族主義, 地方民族主義 反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蘇聯: 比較的 강경한 方向</li> <li>○ 中共: 온건한 方向</li> </ul>
制度面 (形式)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聯邦制 實施</li> <li>- 15個의 聯邦共和國</li> <li>- 20個의 自治共和國</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區域自治制 實施</li> <li>- 全中國의 部分概念.</li> <li>- 政權樹立以前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蘇聯 - 遠心的 성향</li> <li>○ 中共 - 求心的 성향</li> <li>○ 蘇聯 - 聯邦制概</li> </ul>

比較基準	蘇 聯	中 共	比 較 評 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各 共和国의 分離權을 包含한 民族自決權 認定.</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許容했던 分離權, 聯邦制 構想을 政權樹立 以後에는 부정하고 自治制原理를 適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念은 西歐的制度의 產物</li> <li>○ 中共-部分概念은 歷史的인 내경·외경概念의 產物</li> </ul>
<p>政策面 ( 실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差別政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人的 優越性 強調</li> <li>- 蘇聯共産黨 및 高位 政治幹部는 러시아人의 로 構成</li> </ul> </li> <li>○ 彈圧政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의 民族, 하나의 言語로 統合코져 온갖 手段方法동원</li> <li>- 民族指導者 崩기와 반항에 對한 說得보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平等, 宥和, 優待 政策 (漢族의  우월성 불언급)</li> <li>○ 政策의 內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民族平等政策</li> <li>- 民族團結強化 政策</li> <li>- 民族區域自治 政策</li> <li>- 少數民族幹部 培養 政策</li> <li>- 少數民族의 言語文字 및 풍속 관습 존중 政策</li> </ul> </li> </ul>	<p>蘇聯 : 傳統的 러시아인 슬라비즘과 革命課業遂行 間의 마찰로 因한 政策面에서의 表裏 不動性 露呈</p> <p>中共 : 中華思想에 依한  포용력 에 기인.</p>



比較基準	蘇 聯	中 共	比 較 評 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是 형벌위주</li> <li>- 正党指導者 및 公務員 봉기는 과감한 숙청 단행</li> <li>○ 宥和政策과 強硬政策 併用</li> <li>- 蘇聯政府에 協調的 또는 反抗的 民族指導者들에 對한 兇과 채적의 方法 適用</li> <li>- 少數民族出身의 親러시아人에 對해 教育을 實施, 各 自治國에  배치함으로써 親러시아 的 方向으로 誘導하는 同和政策 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少數民族의 經濟, 文化 發展 協調政策</li> </ul>	

比較基準	蘇 聯	中 共	比 較 評 価
對外關係 面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国과 유대인 의 關係</li> <li>- 유대인移民問題 및 少數民族人 權彈圧에 對한 美国의 介入</li> <li>- 兩國間 相互 비방 및 對立</li> <li>○ 西獨과 게르만 民族 關係</li> <li>- 불가강地域의 게르만民族彈圧 에 西獨이 비 방</li> <li>○ 對東歐圈關係</li> <li>- 東歐圈諸國의 民族과 蘇聯 國內民族은 相 互 連繫性을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내적 少數民族 政策의 成功여부 가 第3世界와의 關係증진에 影響</li> <li>- 第3世界論</li> <li>○ 蘇聯과 위글族, 카작크族 蒙古族 關係로 미묘</li> </ul>	<p>蘇聯：少數民族政策 問題는 中共 에 比해 國 際性이 높음. 그러나 紛爭 擴大 可能性 은 높지 않 음.</p> <p>中共：少數民族問題 와 國際關係 와의 關聯性 낮음.</p>

比較基準	蘇 聯	中 共	比 較 評 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对 第3世界 關係</li> <li>- 国内少数民族政 策의 成败여부 는 中蘇間의 第3世界 諸国 争奪戰에 影響 을 미침</li> </ul>		
<p>中 · 蘇 紛 争 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00 마일의 中蘇国境地帶에 서 中共과 随 時로 国境紛争 發生</li> <li>- 카자크族과 위 글族의  소속關 係 不分明</li> <li>○ 少数民族彈压 事 例에 대한 兩 国間의 相互誹 謗 및 相对国 의 民族指導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蘇聯의 우크라 이나彈压 事例 非難</li> <li>○ 우즈베크共和國 經濟박탈 非難</li> <li>- 蘇聯의 3分の 2의 면화生産</li> <li>- 방직工業은 蘇 聯의 3%에 不過</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雙方의 誹謗宣 伝主題는 同和 政策, 經濟박탈 少数民族의 不 安등임.</li> <li>○ 雙方 紛争의 形態는 放送을 通한 선전 및 비라나 伝單살 포의 形態로 展開.</li> </ul>

比較基準	蘇 聯	中 共	比 較 評 価
	<p>煽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蘇聯은 中共의 위글族 彈圧事例비방 및 民族指導者들 煽動</li> <li>- 中共은 蘇聯의 우크라이나인 彈圧事例 批判 및 煽動</li> </ul>		
僑胞 實態面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在蘇僑胞, 全体人口의 0.14 % 180 여개 少数民族中 43 順位</li> <li>○ 在蘇僑胞, 民族古有의 言語, 文化, 風俗 보전</li> <li>● 在蘇僑胞의 母國觀</li> <li>- 蘇聯本土僑胞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在中共僑胞, 全体人口의 0.2 % 54 個 少数民族中 10 位</li> <li>- 남한地域出身이 훨씬 많음.</li> <li>● 在中共僑胞, 韓民族 古有言語, 文化 생활습속 保持</li> <li>○ 北韓의 在中共</li> </ul>	<p>蘇聯 : 사할린僑胞問題가 있음.</p> <p>中共 : 현안僑胞問題가 없음.</p>

比較基準	蘇 聯	中 共	比 較 評 価
	<p>民族共同体意識 과 郷土文化에 대한 郷愁를 지니고 있으나 親北韓的 南北 韓等 距離 視 角 保有</p> <p>○ 사할린僑胞:故 國에 대한 애 타는 향수를 지니며 韓國에 대한 積極的支 持와 信賴를 가진 反面 북 괴에 대해서는 경멸과 不信의 태도 표명.</p> <p>○ 北韓의 在蘇僑 胞 影響力行使 不可.</p>	<p>僑胞에 對한 影響力行使 거 의 不可</p> <p>○ 在中共僑胞 母 國觀도 南北 等距離 視角 保有.</p>	

## 5. 結 論

### 가. 中共의 少數民族政策

○ 中共의 少數民族問題는 主要少數民族의 居住地域이 主로 地下資源이 豊富한 國境地帶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中共의 統一社會主義國家建設이라는 現實的인 要請과 國防이라는 戰略的인 側面 이밖에도 中共의 少數民族政策의 成功与否가 아시아·아프리카 諸民族에게 미치는 影響때문에 매우 重要한 意味를 지님.

특히 中·蘇接境地域에 散在한 諸少數民族問題는 中·蘇紛爭의 한 促進要因으로 作用할 可能性도 배제할 수 없음.

○ 中共의 少數民族理論은 맑스·레닌主義의 原理를 受容, 民族問題와 階級問題를 同一視하는 基礎위에서 民族問題의 內容과 特性을 社會와 歷史變遷에 따라 變하는 것으로 把握하고 있기 때문에 窮極的으로 民族消滅論을 主張하고 있음.

○ 中共의 少數民族政策은 “自治”와 “同和”를 併行하여 급진·강제적인 동화정책을 지양하고 점진·자발적인 동화정책을 추구하고 있음. 이러한 政策기조위에서 少數民族에 대해 양보·우대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음.

— 言語文字 및 풍속관습에 대한 존중

— 少數民族의 經濟文化發展 協調

○ 따라서 中共의 少數民族 同和政策은 대체로 安定된 基礎위

에서 推進되고 있으며 漢族과 少數民族間의 對立이 解消되어 實質的인 平等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現在의 少數民族政策기조가 계속 追求될 것으로 展望됨.

- 在中共 우리僑胞들도 다른 少數民族과 마찬가지로 中國國籍을 取得, 同和過程을 밟고 있으며 時間이 經過함에 따라 現地同和現象은 深化될 것으로 豫상됨.

#### 나. 蘇聯의 少數民族政策

- 蘇聯의 少數民族政策은 理論面에서 마르크스·엥겔스의 民族自決의 概念을 레닌과 스탈린이 러시아革命遂行의 原動力으로써 導入 適用하였음.
- 그러나 실제면에서는 帝政러시아時代에서부터 一貫되어온 러시아民族 위주의 民族差別政策이 現今에 까지 持續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속에서 少數民族에 對한 蘇聯의 現指導體制 民族同和政策은 過激思想을 근간으로 하면서 온건적인 立場을 견지하기 때문에 強硬策과 宥和策이 混合된 不安定性을 露呈하고 있음.
- 少數民族問題와 國聯한 國內的 諸般 不安定要因에도 不拘하고 高度로 中央執權화된 政治動員體制를 基盤으로 政治的 安定勢를 維持하고 있으며 또한 對內 民族問題로 인한 對

外的 紛爭 擴大 可能性도 그렇게 높지는 않음.

- 그러나 蘇聯이 現在 안고 있는 對內外的 民族問題를 效果的으로 對処하자면 政治·經濟的 其他 諸側面에서 보다 새롭고 세련된 테크닉을 開發해야 함.
- 蘇聯의 少數民族政策과 在蘇僑胞와의 關聯性을 中心으로 볼 때에 蘇聯本土의 僑胞들은 生活實態 및 法的地位面에서 現地同和가 잘 이루어져 있으나 사할린 僑胞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外交的 懸案으로 提起되고 있음.